

청.장년 성경공부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데이비드 메이 (David May)
켄 라일 (Ken Lyle)
펠리시 소르그 (Felisi Sorgwe)
프랑스 브라운 (France Brown)
캐리 프로리히 (Carey Froelich)
마이클 갓프레이 (Michael Godfrey)
마이크 하톤 (Mike Harton)
로니 메리어트 (Ronny Marriott)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판권소유 © : 2012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 1961년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Management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1과 ~ 5과, 11 ~ 12과)

채봉수 (뉴송 침례교회, 달라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6과 ~ 10과)

새누리침례교회, 달라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13과, 성탄절 부록)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침례교회, 휴스턴)

총편집: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달라스)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 (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2년 9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온라인 성경주석. 좀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성경주석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짐 데니슨 박사가(The Center for Informed Faith 회장, 텍사스주총회 신학자) 저술 했습니다.. 1-866-249-1799 로 전화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e-mail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전자포맷(PDF) 파일만 가증합니다. 개인용으로는 6불이고, 5명이 그룹으로 사면 25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무료 배송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1-866-249-1799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 더 자세한 인도자 지침서를 원하시면 1-866-249-1799 로 전화하셔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주문은 5불, 다섯 명이 그룹으로 사면 20불입니다.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 성경공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펠리시 소르그위는 1과에서 3과까지와 크리스마스 과목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는데, 텍사스 휴스턴시 소재의 휴스턴침례신학교의 기독교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소르그위 박사는 또한 휴스턴에 있는 마라나타 국제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시민으로서 남서침례신학교에서 두 개의 석사학위를, 베일러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브라운은 1과에서 3과까지의 “교사 계획”을 집필하였는데, 휴스턴에 있는 성경대학에서 교수와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성경 해석, 성경적 교수법, 그리고 강해설교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가르침과 설교를 위해서 국내 및 외국으로 여행을 한다. 그는 침례교회들에서 설교목사, 기독교 교육목사, 그리고 선교사역자로 섬겼다. 프랑스는 휴스턴에 있는 New Providence 침례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사역을 인도하고 있다. 그는 블린대학(A.A.), 텍사스 A & M 대학교(B.A.),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Th.M.)을 졸업했다.

데이비드 메이는 4과에서 8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다. 메이 박사는 캔사스 쇼니에 있는 중부 침례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서부 지역의 침례교단에서 강사와 교사로서 자주 섬기고 있다. 그는 작품에서 1세기 시대의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에 연관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또한 Review & Expositor라는 침례교 일간지의 이사회의 이사이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이클 가프리는 4과와 6과를 위한 “교수계획”을 집필하였는데, 텍사스의 로빈슨에 본거지를 둔 트루 코스 미니스트리 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또 트루 코스 리빙, 러닝, 리딩 사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가프리 박사는 전국적인 지명도와 미국 성인 평생 교육 위원회에서 우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여하는 말콤 노울스 상을 수여하였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종교교육학 석사)와 베일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리 프로리히는 7과와 8과의 “교수계획”을 집필하였다. 프로리히 박사는 텍사스 베이타운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제자도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여러 침례교회를 40년 이상을 섬겨왔다. 휴스턴 침례대학교와 남서부침례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2002년 5월 뉴올리언즈 침례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교육사역 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리와 그의 아내 케이에게는 결혼한 3명의 자녀와 6명의 손주들이 있다.

켄 라일은 9과에서 13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다. 라일 박사는 텍사스 아빌레에 있는 하딘-시몬스 대학교의 록스톤 신학교에서 그리스어와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다. 켄은 버지니아, 서버지니아, 캔터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여러교회를 섬겼다. 텍사스 주총회와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그는 나이지리아 옥보모소에 있는 나이지리아 침례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마이클 하튼은 9과와 10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과목의 “교수계획”을 집필하였다. 하튼 박사는 버지니아의 미드로디안에 살고 있고, 교육 상담과 인생 코치를 하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제일침례교회 성도이다. 그는 경험 많은 교과과정 작가로서 Baptist life의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봉사하였다.

로니 메리엇은 11과에서 13과까지의 “교수계획”과 또한 이 과목들의 장년 성경공부 지침을 집필하였다. 메리엇 박사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목사다. 그는 남서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태복음: 제자도의 입문서

이 교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3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5

학습 일자

1단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우기

1과 _____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9
	마태복음 1:18-2:15, 19:23	
2과 _____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	16
	마태복음 3장	
3과 _____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22
	마태복음 4:12-22	

2단원.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우기

4과 _____	제자의 구별된 삶.....	29
	마태복음 5:1-16	
5과 _____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대로 살기.....	36
	마태복음 5:17-48	
6과 _____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라 - 그런 방식이 아님.....	43
	마태복음 6:1-18	
7과 _____	하나님을 믿고 걱정을 멈춰라.....	50
	마태복음 6:19-34	
8과 _____	올바른 선택을 하라.....	56
	마태복음 7:1-27	

3단원.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9과	_____	제자도의 근본 본성을 마주하라.....63 마태복음 8:18-22
10과	_____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들.....69 마태복음 9:35-10:15, 24-31
11과	_____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75 마태복음 16:13-17, 21-26
12과	_____	참되어라, 은혜를 보여라, 겸손하라.....81 마태복음 23:1-12

4단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13과	_____	제안이 아닌 명령.....87 마태복음 28:16-20
성탄절	_____	베들레헴으로 가보자.....92 누가복음 2:1-20

[제 1 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1:18-2:15, 19-2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1-2장</p>	<p>학습주제 예수님 탄생의 배경은 그 분이 메시아이고 그러므로 제자가 될 만큼 존귀한 분임을 보여준다.</p> <p>탐구질문 예수님 탄생의 배경은 그분이 어떻게 제자로서 따를 만큼 존귀한 분 인지를 보여주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이 탄생한 배경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초 입문 서적으로서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그 핵심을 보여준다.

주로 유대인 청중들에게 썼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던 다윗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마11:17)¹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고 나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태와 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 작가들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탄생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 수호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줌; 목자들이 말구유에 놓인 아기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마태는 주님의 천사가 어떻게 꿈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놀라운 별에 이끌리어 아기로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왔는지; 헤롯대왕의 반응;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가 이집트로 향한 여정; 헤롯대왕이 베들레헴과 주변의 남자아기들을 죽이기 위해 군인들을 보낸 일; 그리고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땅으로 극적으로 돌아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차이점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부한 지식을 얻게 한다.

본문 해석

기적으로 잉태된 예수님 (1:18-25)

요셉의 당황함(1:18-19). 감사하게도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기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으로 인해 요셉이 당황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야기를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어준다. 요셉과 같은 위치에 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확신하였다.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마태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성격에 대한 생각을 제공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을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약혼을 깨트린 것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결혼과 같이 강력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신명기 22:22-24절을 보라). 요셉은 약혼을 해지하려고 마리아에게 파혼장을 써주려고 했고,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인 비난과 돌로 맞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편지를 사적으로 전해주려고 결정하였다.

천사의 확증(1:20-21).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신에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려는 계획을 행복하게 진행하라고 말하였다. 천사는 또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아기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다.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그리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 26:24)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완성됨(1:22-23). 마태는 주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완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사야 7:14절을 보라). 마태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요셉의 반응(1:24-25). 마태가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의 진짜 성격은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흥미를 일으키는 동방박사의 방문 (2:1-11)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가운데 하나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방문이었다.

2:1-2.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신비스럽게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들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 2:2-4; 60:1-6).

2:3.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던 헤롯 대왕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마 2:2) 소식을 듣고 매우 당혹하였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아(혹은 에돔)의 통치자 가운데 수장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당시 블레셋 땅의 식민 통치자인 로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2:4-6. 헤롯대왕은 백성들의 종교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지도자들은 미가의 예언(미가서 5:2절을 보라)에 따르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였다.

2:7-8. 헤롯은 은밀하고 교활하게 박사들에게 그들이 별을 처음으로 본 것이 언제이냐고 물으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감추고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 2:8)고 지시하였다.

2:9-11.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별의 인도를 받았다. 요즘 교회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함께 평안하게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러왔다는 것이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먼저 찾아와 있는 곳에 목자들이 “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왔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쉽게 놓치고 있지만 성경이 밝히고 분명한 차이점은 목자들이 아기를 보러 갔던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그를 경배하러 갔다는 것이다(마 2:11절과 눅 2:16-17절을 비교하라). 또한 성경은 아직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러 급하게 서둘렀던 목자들이 예물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마 2:11). 성경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들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은 분명히 지나친 상상력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세 명이었다고 언급된 것은 단지 꼭 세 명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세 가지의 예물을 말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은 예수님 (2:12-23)

동방박사들에게 경고함(2:12).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애굽으로의 여정(2:13-18). 동방박사들이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강권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요셉은 순종했다(2:14).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피하였다. 이것은 요셉이 천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그날 밤에 바로 떠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동안,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베들레헴 주변의 두 살 아래 남자아기들을 죽이게 하였다(2:15-18).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애굽은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게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2:19-23). 헤롯이 죽고 난 후, 아직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려주었다(2:19-20).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요셉은 아버지인 헤롯만큼이나 잔혹한 아겔레오가 유대의 왕인 것을 알고, 유대지방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 속에서 또 다른 경고를 받고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하기 위해 북쪽을 향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났다(2:12-23).

핵심 의미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그 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깔려있는 기적적인 요소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마태는 이러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래서 그분은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요셉의 예를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요셉이 명령을 받은 대로 정확하게 수행한 사건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어보라. 파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천사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따랐던 이야기를 들었다(1:24-15절을 보라). 주님의 천사가 또다시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일어나서 아마도 바로 그날 밤에 애굽으로 피하였다(2:14절을 보라). 주님의 천사가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2:21절을 보라). 마침내, 갈릴리로 가서 정착하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대로 하였다(2:22-23절을 보라).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시면 그대로 하라.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a. 각 학생의 의자에 과목 소개지를 놓는다(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org의 이번 학습에 대한 “교수용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과목 소개지는 해당 과목의 부분적으로 완성된 개요이다. 완성된 과목 개요뿐만 아니라 과목 소개지 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org의 이번 학습에 대한 “교수용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동안 빈 칸을 기록함으로써 수업에 좀 더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완성된 개요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b.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칠판 혹은 차트에 “교사 계획-다양한 학습활동”의 1b 단계의 개요를 기록한다.

2.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다.

3. 아래의 “GPS”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텍사스의 어느 네 명의 가족이 휴가를 맞아 그랜드 캐년으로 SUV를 타고 갔다. 여행은 3일간 1,500마일이 걸렸다. 그들은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경계에서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다.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6살 아이가 “아빠, 여기에 와 본적이 있어요?”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니, 아들아!”라고 대답했다.

데이빗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오는지를 알았어요?”라고 다른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아버지는 “글쎄다, GPS를 믿고 따라왔는데”라고 대답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항해 및 위치알림 장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3일간 1,500마일의 여행보다 훨씬 더 어렵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때로는 길을 잃고, 길에서 이탈하고 또는 단순히 어디로 가야할지 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른다.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표현한다. 그 분의 족보, 구약의 예언의 완성, 말씀, 사역들이 메시아로서의 신뢰를 보여 준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제공하여 우리가 영적인 여행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다. 이러한 제자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28:19절(읽는다)에서 볼 수 있다.

4. 학생용 교과의 “마태복음의 소개. 제자도의 핵심”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전체 수업을 요약한다. 전체 학습의 각 단원의 요점을 소개한다.

5. 1과의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읽는다.

학습 인도

6. 수업 중간에 이해를 돕고, 분명히 하고, 성경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하여 학생용 교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를 언급한다.

7.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1:18-25절을 읽게 한다. “놀라워라!”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주의를 과목 개요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과목 개요지에 “메시아가 여기에 계신다!”고 기록하도록 격려한다.

8.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의 특성을 요약한다(1:18-19). 학생용 교과의 질문에서 1번을 질문 한다.

9. 1:20-21절에 나오는 천사의 소식을 설명한다. 1:22-23절과 이사야 7:14절을 언급한다. 1:24-25절의 말씀을 요약한다.

10. 학생용 교과의 질문 4번을 한다.

11.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1-11절을 읽게 한다. “아기에게로 가는 다른 길”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과목 개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12.다음의 질문들을 한다: 동방박사 혹은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헤롯은 당혹했는가? 왜 “모든 예루살렘”이 당혹했는가? 2:9-11절을 요약한다.

13.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12-15절, 19-23절을 읽게 한다. “다시 길 위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과목 개요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개요지에 “메시아의 보호”를 기록해 넣도록 한다.

14.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2:15)과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2:23)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15.학생용 공과의 질문 2번을 한다.

적용 격려

16.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입증하는 본문에서 3가지 요소를 구별하도록 한다.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다. 대답을 듣는다.

17.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구별해서 축하할 것인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 대답을 듣는다.

18.다음 과목의 학습 목표를 본다.

19.기도로 마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3장</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3장</p>	<p>학습주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는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참된 회개를 베푸는 요한의 소명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가져왔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이 받은 침례에 대하여 제자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침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침례가 제자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준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우리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서문의 성격으로, 마태는 침례 요한의 공중 사역을 이야기한다.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주님의 선구자였다. 마태는 침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였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자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히는 이 시점에서, 마태는 이 사건을 사용하여 제자도의 첫 번째 두 단계인 회개와 침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침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신명기 18:18; 이사야 40:3; 말라기 3:1; 4:5-6; 마태복음 3:1-3; 마가복음 1:2-4; 누가복음 3:3-6; 요한복음 1:22-23을 보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마 3:3).

마태와 마가 둘 다 요한이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마 3:4; 막 1:6절을 보라). 사람들은 일말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마 3:5) 나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흥미롭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알았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3:7)이라고 불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종교 분파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히브리어 성경을 강조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다. 그들은 자주 우리 주님과 충돌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세금 거두는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또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 제사장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은 보통 사두개인이었다.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본문 해석

침례 요한의 가르침, 구약 예언의 완성 (3:1-6)

3:1-2. 마태는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가르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2)이라고 요약하였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참된 회개로 불러내었다.

“유대 광야” (3:1)에서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었으며 마태가 이 이야기를 꼬집어냈다. 4복음서 작가들은 모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였는데(이사야 40:3-5; 마 3:1-3; 막 1:2-4; 눅 3:3-6; 요 1:22-23), 이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왕실 고위 인사가 모든 면에서 즐거워하도록 성내와 도시의 모든 도로를 보수하고 청소하였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람들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언덕을 평탄하게 하고, 방문하는 왕족을 위해 모든 곳을 치장하였을 것이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끗케 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고 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완성한 것이었다.

3:4. 침례 요한의 옷-낙타털과 가죽 띠- 그리고 음식-메뚜기와 석청-은 그의 거친 모습과 삶을 나타낸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해준다(왕하 1:3-8절을 보라).

3:5-6. 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마 3:5) 침례 요한에게 나아왔던 사람 가운데 호기심으로 인해 감동받았던 사람은 적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였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3:6).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례이니, 기쁨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죄의 용서로 인한 결과는 침례가 아니라 회개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외적으로 대중적인 형식인 침례를 받음으로 내면의 개인적인 회개를 따르도록 강권하였다.

회개의 열매 (3:7-10)

3:7-9.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3:7). 이것은 사랑스러운 용어는 아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사용하셨다(23:33절을 보라). 이것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향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써 거룩한 분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분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형태라면, 거룩함은 분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침례 요한은 청중들에게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뚜렷하거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유대 동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면으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3:10. 침례 요한은 침례를 거절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해야 한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놀라운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윤리적인 행동양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동기에서 유래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에서 오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나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무례한 자녀와, 부모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제대로 행동하는 자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불순종하지만 부모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제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자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3:11.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자신은 이 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적당치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가장 낮은 종이 되기에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3:12. 키질, 바닥 쓸기, 알곡, 곳간, 쪽정이, 꺼지지 않는 불등의 이미지는 나무뿌리에 놓인 도끼의 이미지와 흡사하다. 이는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진실 되게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3:13-17.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겸손함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렸고,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요한의 사명을 확인해주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겸손은 침례를 통해 강조되는 특성이운데 하나다.

누가는 우리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는데, 우리 주님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기도하였다는 점이다(마 3:16; 눅 3:21절을 보라).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이 나타나거나 어딘가에서 음성이 들렸다 -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은 물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비둘기로 내려와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 3:17)고 소리치셨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하셨다!

핵심 의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단지 개인적이고 대중적인 삶에서 자신들의 죄짓는 행동을 일삼고 그것이 그냥 옳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자신들의 내면에서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최악된 행동을 찾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주님께서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7:5)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변해야 돼,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 칠판에 아래의 내용을 적는다:

나의 침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2.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다.
3.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침례 받은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칠판에 적어 놓은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4. 2과의 학습목표와 탐구질문을 읽는다.

학습 인도

5. 수업을 인도하기 위해 다음의 수업개요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다(마태복음 3:1-17)

- I. 강변으로 내려오심 (3:1-6)
 - A. 요한의 가르침 (3:1-2)
 - B. 요한에 대한 예언 (3:3)
 - C. 요한이라는 사람 (3:4)
 - D. 요한의 행위 (3:5-6)
- II.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3:7-12)
 - A. 종교지도자들과 대면 (3:7)
 - B. 종교지도자들에게 도전 (3:8-10)
 - C. 예수님의 오심을 규정 (3:11-12)
- III.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의로움 (3:13-17)
 - A. 예수님이 도착하심 (3:13-14)
 - B. 요한이 동의함 (3:15)

C. 성령님의 임재 (3:16)

D. 아버지께서 인정하심 (3:17)

6.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3:1-6절을 읽게 한다. 1-2절의 말씀을 요약한다.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예비자임을 언급한다. 유대인의 침례 의식을 요한의 침례 의식과 연관지어 언급한다. 요한의 메시지, 옷, 음식 등이 그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한다(도움이 필요하면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를 본다).

7. 학생용 공과의 "질문" 1과 2의 질문으로 논의를 인도하라.

8.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3:7-12절을 읽게 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를 설명한다. 요한의 메시지가 구약의 예언의 실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구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를 본다).

9. 학생용 공과의 "질문"에서 3번 질문으로 논의를 인도한다.

10.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3:13-17절을 읽게 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제자도에 대하여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탐구한다(도움이 필요하면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를 본다).

적용 격려

11. 학생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당신이 받은 침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12. 다음 과목의 학습 목표를 미리 읽어본다.

13. 기도로 마무리한다.

[제 3 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4:12-2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4:12-25</p>	<p>학습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는 도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도전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인도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번 과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마 14:12)을 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 마태는 이곳에서 침례 요한의 투옥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왜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는지는 14장에 가서야 밝히고 있다. 마태는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을 이곳에서 함께 언급할 수도 있었다. 침례 요한은 헤롯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디바에 의해 투옥되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갈릴리와 베뢰아를 다스렸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조카딸을 차지하였고, 침례 요한은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비난하였다. 헤롯 안디바는 이것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를 비난한 것으로 인해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마 14:1-12절을 보라).

마태복음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으로 갔고, 가버나움에 가서 살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셨다. 마태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본문 해석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다 (4:12)

주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곳은 유대였다(마 3:13-17; 눅 3:21-22을 보라). 사탄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한 곳도 유대였다(마 4:1-11; 눅 4:1-13절을 보라). 주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북쪽을 향하여 가셨다. 주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의 갈릴리였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마태가 나사렛에서 주님이 보낸 시간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누가는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회당 밖으로 밀어내어 언덕 위에서 밀어 버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걸어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가시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다(눅 4:14-30). 마태와 누가 둘 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말해준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살다 (4:13-16)

고향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시고, 주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의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마태는 주님이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한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일로 보았다(사 9:1-2절을 보라). 주님의 빛이 그 지역에 비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마 4:16).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하는 지역은 여기에서 “이방의 갈릴리” (4:15)라고 언급되었다. 구약의 지형도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할례를 받을 때, 시몬은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 (눅 2:32)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흥미를 일으키는 동방박사의 방문 (2:1-11)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가운데 하나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방문이었다.

2:1-2.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신비스럽게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들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 2:2-4; 60:1-6).

2:3.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던 헤롯 대왕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마 2:2) 소식을 듣고 매우 당혹하였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아(혹은 에돔)의 통치자 가문 가운데 수장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당시 블레셋 땅의 식민 통치자인 로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2:4-6. 헤롯대왕은 백성들의 종교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지도자들은 미가의 예언(미가서 5:2절을 보라)에 따르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였다.

2:7-8. 헤롯은 은밀하고 교활하게 박사들에게 그들이 별을 처음으로 본 것이 언제이냐고 물으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감추고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마 2:8)고 지시하였다.

2:9-11.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별의 인도를 받았다. 요즘 교회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함께 평안하게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러왔다는 것이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먼저 찾아와 있는 곳에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왔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쉽게 놓치고 있지만 성경이 밝히고 분명한 차이점은 목자들이 아기를 보러 갔던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그를 경배하러 갔다는 것이다(마 2:11절과 눅 2:16-17절을 비교하라). 또한 성경은 아직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러 급하게 서둘렀던 목자들이 예물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마 2:11). 성경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들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은 분명히 지나친 상상력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세 명이었다고 언급된 것은 단지 꼭 세 명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세 가지의 예물을 말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은 예수님 (2:12-23)

동방박사들에게 경고함(2:12).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애굽으로의 여정(2:13-18). 동방박사들이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강권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요셉은 순종했다(2:14).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피하였다. 이것은 요셉이 천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그날 밤에 바로 떠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동안,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베들레헴 주변의 두 살 아래 남자아기들을 죽이게 하였다(2:15-18).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애굽은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게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2:19-23). 헤롯이 죽고 난 후, 아직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려주었다(2:19-20).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요셉은 아버지인 헤롯만큼이나 잔혹한 아켈레오가 유대의 왕인 것을 알고, 유대지방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 속에서 또 다른 경고를 받고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하기 위해 북쪽을 향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났다(2:12-23).

핵심 의미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그 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깔려있는 기적적인 요소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마태는 이러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래서 그분은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요셉의 예를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요셉이 명령을 받은 대로 정확하게 수행한 사건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어보라. 파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천사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따랐던 이야기를 들었다(1:24-15절을 보라). 주님의 천사가 또다시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일어나서 아마도 바로 그날 밤에 애굽으로 피하였다(2:14절을 보라). 주님의 천사가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2:21절을 보라). 마침내, 갈릴리로 가서 정착하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대로 하였다(2:22-23절을 보라).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시면 그대로 하라.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a. 각 학생의 의자에 과목 소개지를 놓는다(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org의 이번 학습에 대한 “교수용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과목 소개지는 해당 과목의 부분적으로 완성된 개요이다. 완성된 과목 개요뿐만 아니라 과목 소개지 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org의 이번 학습에 대한 “교수용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동안 빈 칸을 기록함으로써 수업에 좀 더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완성된 개요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b.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칠판 혹은 차트에 “교사 계획-다양한 학습활동”의 1b 단계의 개요를 기록한다.

2.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다.

3. 아래의 “GPS”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텍사스의 어느 네 명의 가족이 휴가를 맞아 그랜드 캐년으로 SUV를 타고 갔다. 여행은 3일간 1,500마일이 걸렸다. 그들은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경계에서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6살 아이가 “아빠, 여기에 와 본적이 있어요?”하고 물었다.

아빠는 “아니,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데이빗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오는지를 알았어요?”라고 다른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아빠는 “글쎄다, GPS를 믿고 따라왔는데”라고 대답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항해 및 위치알림 장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3일간 1,500마일의 여행보다 훨씬 더 어렵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때로는 길을 잃고, 길에서 이탈하고 또는 단순히 어디로 가야할지 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른다.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표현한다. 그 분의 족보, 구약의 예언의 완성, 말씀, 사역들이 메시아로서의 신뢰를 보여 준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제공하여 우리가 영적인 여행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다. 이러한 제자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28:19절(읽는다)에서 볼 수 있다.

4. 학생용 공과의 “마태복음의 소개. 제자도의 핵심”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전체 수업을 요약한다. 전체 학습의 각 단원의 요점을 소개한다.
5. 1과의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읽는다.

학습 인도

6. 수업 중간에 이해를 돕고, 분명히 하고, 성경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하여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를 언급한다.
7.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1:18-25절을 읽게 한다. “놀라워라!”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주의를 과목 개요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과목 개요지에 “메시아가 여기에 계신다!”고 기록하도록 격려한다.
8.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의 특성을 요약한다(1:18-19). 학생용 공과의 질문에서 1번을 질문 한다.
9. 1:20-21절에 나오는 천사의 소식을 설명한다. 1:22-23절과 이사야 7:14절을 언급한다. 1:24-25절의 말씀을 요약한다.
10. 학생용 공과의 질문 4번을 한다.
11.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1-11절을 읽게 한다. “아기에게로 가는 다른 길”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과목 개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12. 다음의 질문들을 한다: 동방박사 혹은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헤롯은 당혹했는가? 왜 “모든 예루살렘”이 당혹했는가? 2:9-11절을 요약한다.
13.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12-15절, 19-23절을 읽게 한다. “다시 길 위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과목 개요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개요지에 “메시아의 보호”를 기록해 놓도록 한다.
14.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2:15)과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2:23)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15. 학생용 공과의 질문 2번을 한다.

적용 격려

16. 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입증하는 본문에서 3가지 요소를 구별하도록 한다.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다. 대답을 듣는다.

17.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구별해서 축하할 것인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 대답을 듣는다.

18. 다음 과목의 학습 목표를 본다.

19. 기도로 마친다.

[제 4 과]	제자의 구별된 삶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5:1-1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5:1-16</p>	<p>학습주제 구별된 자질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일반적인 삶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자질과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을 평가해보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복음 5장-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다섯 가르침(설교)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마 5-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25장).¹

마태 당시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의 많은 주제들을 떠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이 가르침은 산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청중들은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가르침을 받고 선언했던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출 19:1-25). 마태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새로운 인도자였다. 또한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의 율법사나 성경학자들의 가르침과도 대조되었다.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권세로 인해 신선하며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놀랍게 하는 것이었다(마 7:28).

마태복음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움과 도전 그 자체였다. 이 대안은 마태가 이름붙인 하나님 나라(통치)에서의 삶에 대한 실천을 떠오르게 한다. 마태 당시의 청중들에게 이러한 통치는 그저

오며가며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삶은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증인의 삶이다.

5:1-2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복되는 구절은 "...자는 복이 있나니"다. "복이 있다"의 전통적인 해석은 매우 흔하면서도 이번 본문에 대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는데, 그리스어(마카리오스)의 뜻을 따라서 행복, 행운 또는 기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청중들은 마카리오스의 숨겨진 뜻인 명예롭다: ...는 자는 명예롭다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학대받고 상처받고, 힘이 없는 자로 구분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당시의 세계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자격을 주었다: 그들은 명예롭다.

본문 해석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듣고 (5:1-2)

마태복음에서 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산에 올랐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변화 17:1-8; 위대한 사명 28:16-20).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랍비와 같은 신호를 주고 있다; 그는 앉으셨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순간의 중요성을 놓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라 하였다고 말해준다.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음에 이어질 말들은 특별한 무게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5:3)

뒤에 나오는 다른 대부분의 것들처럼 이 복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청중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확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규정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경건하고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의함으로 사회의 끝자리로 내몰려서 겸손해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지고(시편 34:18)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든지, 그들이 얼마나 낮아졌다고 느끼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명예롭다고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은 천국을 현재의 실제적인 것으로 만든다.

애통하는 자 (5:4)

고대사회는 높은 영아 사망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많은 세상이었다. 애통함은 대부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흔한 손님이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애통은 상실한 것으로 인해 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 애통함은 불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생겨난 예언자적인 슬픔이다. 이 애통함은 울적함이 애통해하는 슬픔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예언자적인 분노가 있을 때 생겨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5-9절에 나오는 다른 것들처럼 이 복은 “그들이 ... 받을 것”이라는 미래시제로 되어있다. 이 확증은 미래의 것이지만 깊은 관심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찾고 행할 때 매일의 경험 속에서 평안함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은유한 자 (5:5)

고대사회는 강한 자가 명예롭고 그들이 전리품을 얻는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은 이상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뜻과 소망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배려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a)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해진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전은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선물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이기심과 자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존중이 존재하는 세상의 선물이다. 이 세상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이다(6:10).

의에 주린 자 (5:6)

이 복에 대하여 많은 번역본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번역하고 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정의를 갈망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용되고 남용되는 체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함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확증은 간단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핍히 여기는 자 (5:7)

이 지점에서 팔복에 세밀한 변화가 일어난다. 앞선 네 개의 복들은 사회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강압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다. 착취 받고 이용당하고,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약하고 굶주린 자들이다.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복들은 사람들이 행동할 힘이 없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제자들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수님이 명예롭다고 인정하는 첫 번째 행동은 자비 혹은 동정심의 발휘다. 자비/동정심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사 30:18a). 동정심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다. 자비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제자들이 이미 동정심을 품고 있음으로 명예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비는 그들의 행위라는 옷에 섞여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거룩한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비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배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과 함께,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은 자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예를 둘 다 보여준다(마 18:21-35).

마음이 청결한 자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고대사회에서 마음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소망하는 곳이다. 내적인 반응은 명백한 행동으로 성취감을 얻는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시 24:4). 청결한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으로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청결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자신의 것을 맞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확증하셨다.

화평케 하는 자 (5:9)

명예를 얻기 위한 경쟁이 고대사회에는 만연했다. 아주 사소한 모욕조차도 위기와 폭동의 수준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명예롭다고 하신다. 화평케 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것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해를 위해 기꺼이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특성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하신다.

핍박을 받은 자 (5:10-12)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통치는 헤롯, 로마제국, 종교지도자 또는 그 어떠한 다른 권력이 말하는 통치와 항상 충돌한다. 박해, 오해, 그리고 소외 등은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해준다. 하나는 그들이 분류되어 박해를 받을 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격려를 받기 위해 과거와 선지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행위와 도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모범이다.

변환을 위한 촉매제 (5:13)

이 구절에서 소금의 이미지는 방부제 혹은 양념으로서 묘사되고 있지만, 고대사회에서 소금은 불꽃을 더 밝고 뜨겁게 하는데도 사용되었다. 소금이 추가된 연료와 소금 접시는 흙으로 만든 오븐 곁에

놓였고, 그래서 “세상(땅)의 소금”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소금은 불꽃을 돋우는 촉매제였다. 그러나 수 주 혹은 수개월 동안 태운 후에는 (맛을 내는) 촉매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실제로는 불꽃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소금은 모아서 길거리에 내버려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는 분명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천국을 위한 촉매제 즉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위한 빛 (5:14-16)

빛과 산 위의 동네라는 이미지는 둘 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자신들이 제자임을 드러내 놓고 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박해받고 소외된다는 위협 때문에, 세상의 목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불의와 상처를 무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은 보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가오고 있으며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 천국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도전을 주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초대를 한다.

핵심 의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약점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강함이 된다는 격려의 말씀이었다. 사회와 문화로 인해 분류되어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관점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또한 도전이 된다. 지금 우리가운데 있고 매우 매력적인 천국은 강력하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에 잘 어울리고 편안해 하고 만족한다면 이 세상에 낙인을 찍힌 것처럼 하늘나라의 회원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자신들의 윤리적인 실천들을 수행하였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다른 방식은 권력과 특권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러한 대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불의를 이겨내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전을 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국이 완성되는 것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소망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를 견디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동정심, 정의, 공의와 같은 천국의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삶을, 이러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기쁨이 넘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교사 계획

(주의: 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는, 조용하게 하고 대답을 기다리며 대답을 요약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삶과의 연결

1. 학생용 공과에 있는 농구팀 코치 존 우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제자가 되는 것은 기초적인 설명을 받은 다음에 신중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습 인도

2. 언급: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따라야 하는 기초 설명서이다. 이어지는 과목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제자도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된다. 마태복음에서 이 설교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핵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설명들을 듣고 신중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경험해야 한다. 이 가르침들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규칙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삶을 구별되게 하기 때문이다.

3.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마태복음 5:1-2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면서 장면을 그려보게 한다. 다 읽은 후에, 학생들에게 이 장면의 요소들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도록 한다:

- a. 왜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셨는가?
- b.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청중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가르쳤는가?
- c. 복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를 참조하여 차이점을 설명한다.

4. 팔복(5:4-12)을 읽을 수 있도록 글로 적어 나열한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 a. 언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을 특별하게 하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원칙들을 가르치셨다.
- b. 질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복 있는 혹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보는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과 반대되는 팔복을 설명한다.
- c. 질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반대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팔복에 관련된 질문 하나 하나에 대답한다. 대답을 적어서 서로 비교해 본다.

5. 다음 문장으로 전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원칙적인 삶은 어려울 것이라고 가르쳤다.

6. 학생용 공과를 사용하여 박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한다. 자원자에게 5:11-12절을 읽게 한다.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에서 설명을 추가한다.

7. 학생용 공과에 있는 다음의 내용을 읽는다: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실한 제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다가온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단 하나의 아들이 있지만, 고통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8. 자원자에게 5:13-16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빛을 사용한 용도를 함께 설명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보도록 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학생용 공과의 정보를 언급하고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의 설명으로 보충한다.

적용 격려

9.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질문:

- a.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강조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 b.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5 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태복음 5:17-4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태복음 5:17-48</p>	<p>학습주제</p> <p>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특성에 근거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완전히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친다.</p> <p>탐구질문</p> <p>어떻게 제자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p> <p>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인도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4과 성경본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명예로운 사람들, 마 5:1-12)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설교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마 5:13-16)이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다. 마태복음 5:17-48절의 이번 과에서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천국의 윤리대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확실한 경험들을 예로 드셨다. 21-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지침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의 행동들에 대하여 여섯 개의 자세한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지침은 특별한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문구로 가르치기 시작했다(5:21,27,31,33,38,43절을 보라).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로 가르침을 이어나갔다(5:22,28,32,34,39,44). 이 여섯 개의 예화는 대조되고 있어서 반어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경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계획의 기초이며 중요한 유대인의 교훈을 새롭게 되살려 내는데 기초가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경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러한 경전들을 주의 깊게 그리고 명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들은 것” 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게 한다. 예수님의

청중들에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성경과 해석은 그들이 소리로 “들은 것”이 전부였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잘 배웠다. 이런 이야기식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청중들이 제자도의 새로운 수준에 도전하게 하였다.

본문 해석

예수님의 말씀과 의로운 방식으로 살기 (5:17-20)

5:17-18. 예수님의 경전에 대한 해석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었는데, 특별히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랬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천국 비전은 유대인의 경전 속에서 설명되고 강조된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예수님은 경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전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자도의 지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5:19-20.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는 그가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된다. 구약의 모세처럼 예수님은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준수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들을 기계적으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과 같은 율법적 도덕의 형태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로움, 즉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이 된다.

분노를 거부하고 - 화해를 실천하라 (5:21-26)

5:21-22.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을 확인했다(출 20:13). 그에 대한 해석은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써 그 근원이 되는 뿌리까지 다가가셨다.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예화를 들면서(마 5:22) 예수님은 분노한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하셨다.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경계 하지만, 분노하는 사람도 태워버린다.

5:23-26. 분노는 깨어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수님은 관계가 깨어진 적,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은 방법을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분노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야 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해를 향하여 제자로서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로 그냥 “가는” 것이다(5:24). 간 다음에 예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5:24). 예수님은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므로 특정한 방법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화해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평적 관계에서도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기적 욕심을 거부하고 - 존중을 실천하라 (5:27-30)

5:27-28.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계에서 예수님은 남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적 관계의 남용은 성적인 현대 문화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한 사람이 진정한 인격체로서 보이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여자는 단지 개인적인 혹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창 1:27; 신 32:18).

5:29-30. 이러한 행동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잘라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였는데, 사람이 눈 하나 혹은 손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탐욕은 한편으로 천국의 제자도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습을 거부하고 - 계명을 실천하라 (5:31-32)

예수님은 신명기 24:1-4절 말씀인 이혼증서에 대한 모세의 전통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이혼에 대한 이런 관습적인 방식은 깨어진 관계가 흔한 당시의 일반적인 절차였다. 성경 용어인 계약관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성경 주석학자인 글렌 스타센은 예수님께선 관계에 완전함을 되돌려 놓기 위한 시도로서 변화의 시작을 주셨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행동이 주어지지 않았다.¹ 그러나 스타센은 고린도전서 7:10-11절을 근거로,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화해를 제안한다.²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예문에서처럼, 화해는 관계에 치유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화해는 새로워진 의사소통, 상담, 회개, 그리고 용서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가르침의 초점은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서로 계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삶에 대한 희망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셨고, 바울도 그러했다(고전 7:15). 고통스러운가? 그렇다. 결과를 늦출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여야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관계보다는 헤어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선을 거부하고 - 성실을 실천하라 (5:33-37)

5:33-36.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문서로 된 계약이 관계를 결속시키고 보전한다. 그러나 1세기의 주로 입으로 말하던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이 신뢰의 약속이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사람이 맹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있게 하였다. 종종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맹세를 할 때, 특별한 행동에 대한 보증의 형태로 하나님을 사용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계획에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하여 신중한 경고가 된다.

5:37. 이 구절은 인격의 성실성과 사람이 한 말의 신뢰도에 대한 것이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어떠한 의미도 곡해시킬 수 있고, 듣는 사람은 진실보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속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제자들의 말은 비난의 여지가 없는 평판에 기초한다.

복수를 거부하고 - 변함을 실천하라 (5:38-42)

5:38-39a. 예수님은 고대 사회에서 깊게 새겨져 있는 말을 구약의 관점에서 인용하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레 24:20절을 보라). 이런 형태의 정의는 동등함이라는 형태에 기초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면, 그 이상의 복수는 하지 않겠지만 그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5:39b.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런 정의에 대한 관점을 새로운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명령이 악에 대항하여 행동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싸우거나 혹은 피하거나 어느 한 쪽을 취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악에 대항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이라는 창조적인 전략을 묘사하신 것이다.

5:40-41. 예수님은 한 사람이 저항하지 않기 위하여 선택하는 세 가지 피해의 예를 드셨다. 강요받는 자가 강요하는 자의 힘을 빼앗는 대안적 행동을 찾는다. 창조적인 반응은 강요하는 자의 일반적인 기대로부터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덜 상처받고, 덜 고통스럽고, 덜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강요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강요받는 사람도 강요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준다.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기를 낮추고 대신에 성령님의 화해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5:42. 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특성가운데 관용에 근거하고 있다. 임시적인 물건은 그저 임시적인 것이다, 늘 사라진다.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소유물은 본연의 가장 위대한 선함을 얻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진실을 살아가게 된다.

미움을 거부하고 - 사랑을 실천하라 (5:43-48)

5:43-45.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레 19:18b)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적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고대사회를 통해서 적들은 위험하고 경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일지라도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적을 사랑함은 천국 제자의 두드러진 표시이다.

이 특별한 말씀이 3세기까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었다.

5:46-47.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요점은 네 개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강화되고 있다. 단지 자기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대답은 부분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5:48. 독자들은 때때로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하라는 부르심에 당황스러워 한다. 또한 이러한 명령은 인정을 받기 위해 극도로 열심히 일하는 완벽 주의적 경향을 가지 사람을 만들어내곤 한다. 더 나은 해석은 온전하거나 혹은 완전하라 이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늘 성공한다는 뜻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온전함은 제자가 행동할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 의미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자도의 방향을 묘사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셨다. 대부분의 예들은 관계와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응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1서에 있는 사도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0)라는 진술을 승인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제자가 세우거나 다시 세울 수 있는 관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예를 고려해볼 때, 우리는 이 여섯 개의 예화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따르기 위한 유일한 것들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자도의 지침들은 다른 상황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예들에 기초를 제공하는 원칙은 수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들을 끌어낼 수 있다.

비록 1세기의 언어와 이미지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은 분명하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어느 작가는 이 말씀들 속의 제자도에 대한 지침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듯한 관찰을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칭송한다. 이해하기 보다는 더 읽기만 하고, 양심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더 이해하려고만 한다.”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되길 소망한다.

교사 계획

(주의: 학생들이 큰소리로 대답해야 모든 경우에는, 조용히 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고, 대답들을 요약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삶과의 연결

1. 진술: 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손을 들어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설문조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제자도의 삶은 측정할 수 있다.”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도 표시하게 한다. 질문:

- a. 찬성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측정할 것인가?
- b. 반대한다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 공부 안내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계속하실 때 이런 주제를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제자도에 대한 기본 설명을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오늘 과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차원 높은 의로움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3. 자원자들에게 여러 번역본으로 마태복음 5:17-20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본문에서 질문하고 싶은 최소한 한 개의 질문을 메모하도록 요청한다. 다 읽은 후에, 질문을 받고 시간이 되는 선에서 학생들이 대답을 하도록 한다. (만약에 답을 모르겠으면 그렇다고 하고, 대답을 찾아보도록 그룹과 함께 한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

- a. 제자들이 알고 있던 계명은 무엇이었나?
- b. 왜 그런 계명 체제가 번성하여 있었나?
- c. 이런 계명은 어떤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 d.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무슨 계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4. 예수님은 성경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근거한 마음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완전히 선한 삶”으로 구성된 한 차원 높은 지수로 제자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모세가 전해준 계명의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다.

5. 자원자들에게 각각 5:21-26; 5:27-30; 5:31-32; 5:33-37; 5:38-42; 5:42-48절을 읽게 한다. 이 본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차원 높은 의로움에 대한 여섯 가지 예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자원자들에게 각 본문과 관련된 학생용 공과의 본문을 요약하거나 읽게 한다.

- a. 수업 전에 칠판에 다음의 표를 그려 놓는다.
- b. 학생들에게 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격려한다.
- c. 성경본문과 학생용 공과의 관련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표를 완성함으로써 요약하게 한다. 여섯 개의 예화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에서 개념을 추가한다.

예화	...너는 들었으나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라
분노		
간음		
(여섯 개를 모두 나열한다)		

6. 큰 소리로 마태복음 5:48절을 읽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하나님의 영적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한 특성을 갖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삶이 생긔게 된다.

7. 마태복음 22:37-40절을 큰 소리로 읽는다. 이것은 “너는 들었으나...내가 말하노니”의 결정판임을 말한다. 이 위대한 명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제자들로부터 흘러가게 되고,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여섯 개 예화의 “내가 말하노니”라는 차원 높은 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도의 삶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적용 격려

8. 응답지를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각 항목에 최소한 한 개의 대답을 적도록 한다. (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org에 있는 “교수자료들”에서 받을 수 있다.)

a.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는가?

- (1) 하나님
- (2) 다른 사람들
- (3) 자신

b. 이번 주에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취할 행동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¹ 글렌 스타센, 산상수훈을 살기: 은혜와 구원에 대한 실천적 소망 (샌프란시스코: 죠시-바스, 2006), 78.

² 스타센, 산상수훈을 살기.

³ 윌리엄 클라센, 적을 사랑하기와 신약성경에서의 비관계 “당신의 적을 사랑하라: 현재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반응들”. 윌라드 스와틀리(루이스빌: 웨스트미니스터/존 녹스, 1992), 8.

⁴ 사무엘 샌드멜, 히브리 성경: 그들의 문학적 종교적 생각에 대한 소개(옥스포드: 대학출판, 1978), 3.

<p>[제 6 과]</p>	<p>너희 믿음을 저렇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보이라</p>
<p>핵심본문 마태복음 6장 1-18</p> <p>배경 마태복음 6장 1-18</p>	<p>학습주제 예수께서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행습을 요구하시다.</p> <p>탐구질문 예수께서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행습을 요구하시다</p> <p>학습목표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행하는지 평가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는 유대주의와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습들을 제시한다: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 마태복음 6:1의 헬라어 *dikaiosune* 는 '의,' 혹은 '공의'를 의미한다 (마 5:10, 20; 6:33). 마태복음 6:1-18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공의"가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 6:1)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최초 청중들의 수치와 영광에 대한 개념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명예보다 더 가치 있거나 존중받는 것은 없었다. 명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받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부나 권력보다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명예를 얻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이기적인 동기로 명예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진실함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것을 경고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이 이미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 할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예들을 제시하셨다. 이 부정적인 예 뒤에는 행해야 할 긍정적인 예가 따른다. 특히 기도에 관해서 그렇다. 마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로 그 중요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이 모범은 '주님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다 (6:9-13).

본문 해석

의를 온전히 행하는 것 (6:1)

"주의하라"고 이 구절에서 경고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들은 올바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신호로 보내는 것이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동기들은 하나님에게 다 밝혀지다. 이러한 이유로 동기는 하나님 나라의 행동들에 있어서 참된 잣대이다. 만일 동기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면 매우 공개적인 증거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과 모순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5:16). 동기는 개인적인 명예나 칭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다.

은혜로운 자선 (6:2-4)

6:2 자선은 긍휼, 혹은 동정의 행동 속에 반영되는 공의의 실천이다. 자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 사회적으로 갑자기 잃어버린 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베푸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선의 행동도 자선을 베푸는 자가 나팔을 불거나 자랑하며 행하면 오직 부분적인 기능만 작용한다. 본 절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 위선자들은 대중으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 관대한 마음으로 하는 척 행동을 한다.

6:3-4 진정한 긍휼, 혹은 동정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고 갈아져서 공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동정이란 크든 작든 선물들이 이름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 본 절에서 보이듯이, 그리고 이어지는 몇 구절에서도 보이듯이, 진실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세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고 집중되는 평화이다.

기도들: 올바른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모델들 (6:5-13)

6:5 예수께서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기 전에 나쁜 예를 보여주셨다.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명예를 얻으려는 기도이다. 자선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은 동기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끄는 기도이다. 기도는 상연이 되고, 기도의 내용, 즉 공의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단지 차례에 불과하다.

6:6. 예수께서는 은밀히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이것은 예배 중의 공기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한 세금 징수원의 공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눅 18:9-14). 기도의 장소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영으로 기도하느냐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도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6:7-8. 예수께서는 또한 이방인들에 의해 관행되어진 부정적인 기도의 모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의미 없고 관련 없는 말들을 잔뜩 쏟아 놓는 것으로 책망을 받았다. 고대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자주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 중언부언 하는 기도엔 내포된 더욱 중요한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들의 신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신들이 돌보지 않고, 감정이 없고, 듣지 못한다고 믿는 것에 있다.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걸하려는 시도는 기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싸구려 신학이다. 공평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창조물에 대해 큰 신경을 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6:9. 이 구절은 "주의 기도"로 호칭되는 부분이다. 기도엔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들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기도엔 대한 누가의 기록에서조차도 그 단어들은 다르게 나타난다 (눅 11:2-4).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의 청중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과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인식 속에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셨다. 그 강조점은 친밀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에 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있다.

6:10.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개인적인 필요와 탄원의 기도로 곧바로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을 제자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은 신비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복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짐에 대한 선명한 예들이다.

6:11. 이어지는 "우리"의 탄원은 이전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아버지/ 당신의" 뜻과 다르다. 이 "우리"의 탄원들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 탄원은 "나에게"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한 쪽 사람들은 정말 잘 먹을 수 있을까? 그 탄원은 생명에 필요한 기본적 양식의 공평한 분배이다.

6:12. 빛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굴레일뿐만 아니라 또한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빛은 다른 사람의 굴레에 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때로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놓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용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6:13. 이 탄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만들 수 있다 (종종 '테스트' 의미의 '시험' 대신에 사용되는 번역). 야고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약 1:13). 만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중에 넘어지면, 그 탄원의 내용은 악으로부터 혹은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심일 것이다.

용서 -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6:14-15)

이 구절들은 12절에 있는 탄원에 대한 주해를 제공해준다. 용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간이 할애되는 데 이는 그 중요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 그것을 더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를 연결시키신다. 하지만 그러한 용서는 기계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상호교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 은혜롭게 -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용서의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의 경험으로 용서한다."

금식 (6:16-18)

6:16. 오늘날 금식이 고대의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자주 행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 목적이 오해될 수 있다. 금식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이다. 금식은 어떤 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부정함과 피해에 대한 사람의 깊은 염려는 스스로 식음을 끊는 것으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음식은 살아가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서 강조된다. 자선과 기도와 잘못사용되는 것처럼, 사람은 잘못된 염려의 가면을 쓸 수도 있다. 금식은 단지 자기를 과시하려는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6:17-18. 예수님의 교훈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너의 깊은 것을 놓고 기도하라. 금식은 팔복 중의 하나를 기억나게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모두 간절한 관심, 혹은 염려를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것이다.

핵심 의미

예수께서는 그의 왕국 제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행습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행습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예수께서는 동기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부분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아시는데, 이것들은 매우 유혹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군중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 대신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들을 평가하라고 촉구하셨다. 당신의 동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겸손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제들이 존재하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행습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강화시켜준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일관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마 6:4, 6, 18). 이는 단지 무명으로 행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약학자 클레런스 조단은 이렇게 진술한다, "'은밀한' 이라는 문구는 '마음으로부터' 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다."¹⁾ 마음으로 믿음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동기들을 아신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칠판에 기록하거나 차트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나의 신앙 활동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1) Clarence Jordan, Sermon on the Mount (Philadelphia: Judson, 1952), 71.

_____ 항상 _____ 가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나누도록 하라.

학습인도

3. 말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적 종교행위, 예를 들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교훈들을 공부한다. 이번 과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다.

4. 학습공과 도입부에 나오는 "과도한 세레모니"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5. 칠판에 다음 내용을 기록하고 반원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이 내용들에 주의해서 읽게하라.

- ㄱ. 종교적인 행위
- ㄴ. 관중 의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 ㄷ. 더 높은 수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반원 중 한 사람이 6:1-4; 6:5-15; 6:16-18 절을 소리내서 읽게하라.

- ㄱ. 반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하도록 하라
- ㄴ.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반원들에게 간략한 강의의 하라.
- ㄷ. 반원들에게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라.
- ㄹ. 각 구절들에 대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라.

6. 질문하라: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공적인 간증을 하는 것, 불우 이웃 돕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 헌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등에 에 대한 동기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7. 질문하라: 보이기 위한 신앙과 그리스도께 신실한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말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볼 때 (5:16) 그들은 이 선행들이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실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도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온다.

적용격려

8.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진술들이 기록된 종이들을 만들되, 괄호 친 곳은 빈 칸을 남겨 놓으라. 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각 진술들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괄호 안에 들어갈 대답들을 칠판에 적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당신과 함께 빈 칸을 채워 나가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예수께서는 "전시" 하는 형태의 기계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의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행습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어떤 동기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 ㄱ. 베푸는 일 (자선)은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흘러넘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 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 ㄷ. 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기 위해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9. 빈 칸을 다 채운 후 각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라.

10.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신앙의 행습들을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가지씩 결정하도록 반원들에게 요청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을 믿고 세상 일들을 걱정하지 말아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6:19-3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6:19-34</p>	<p>학습주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장 우선으로 함으로써 물질에 대해 걱정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p> <p>탐구질문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들인가?</p> <p>학습목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결정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개의 요점을 전개한다: (1) 너의 소유물에 소유당하지 말라 (마 6:19-24); 그리고 (2) 염려에 소유당하지 말라 (마 6:25-34). 이 두 영역들에 대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교훈은 관찰할 수 있는 예들에 의해 입증되어 진다. 물질에 대한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두 개의 비유들, 혹은 예화들을 말씀하셨다: 눈 (6:22-23)과 주인들과 종들의 관계 (6:24)가 그것들이다. 두 비유들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풍요에 충성할 것인지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염려에 빠지는 것을 피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도 역시 자연으로 부터 관찰할 수 있다: 새들 (6:26)과 꽃들 (6:28). 이 두 개의 관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을 비교하는 랍비들의 논법을 사용하셨다. 그 논법의 강점은 만일 어떤 것이 작은 것에 있어서 사실이라면 큰 가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사실이겠느냐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이다.

산상수훈 중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가르침들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옷을 사는 것,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 문제들은 1세기를 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학적인 통찰력은 추상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본문 해석

보화와 참된 보화 (6:19-21)

6:19. 문자적으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 위에 있는 보화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고 축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그들이 불의, 불공평,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물질은 제한적이라고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축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만큼 없이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화를 쌓는 사람은 공동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복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했다. 부자와 큰 창고의 비유 (눅 12:15-21)는 부자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이다.

예수님의 세상의 보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교훈은 물질의 순간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설명이다; 금속이 녹스는 것, 그리고 옷이 좀에 의해 먹힐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질이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큼,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쓰레기 통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만일 십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썩지 않으면 탐욕에 젖은 사람들에게 의해 도난당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다.

6:20-21. 예수님은 모든 보화를 쌓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다른 종류의 보물을 쌓을 것을 격려하신다. 5장은 이러한 보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사랑, 온유함,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일하는 것 등. 이러한 보물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차이점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이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정당화 하려는 시도가 항상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곡을 찌르는 진리, 즉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의 핀으로 이런 변명의 풍선을 터뜨린다.

눈에 대한 비유 (6:22-23)

예수께서는 눈에 대한 비유로 탐욕스런 영의 위험성을 경고하신다. 그는 건강한 눈과 건강하지 않는

눈 (문자적으로 '악한' 눈)을 비교한다. 아마도 이 설명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께서 신실한 눈과 악한 눈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악한 눈에 대한 개념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번역본들은 종종 이 점을 분명하게 번역해놓지 않고 있다. 악한 눈은 야욕으로 가득찬 탐욕스러운 눈이다. 그것이 사람을 장악하게 될 때, 그는, 혹은 그녀는 가지고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게 된다. 그러한 눈은 사람 안에 어두움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사람보다 물건이나 물질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두 주인의 비유 (6:24)

종과 주인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과 부 사이에서 쪼개진 충성에 대한 것이다. 흠정역에서 부는 "매몬"으로 불리는데 이는 아람어 (시리아어)로서 은행, 보고, 창고, 혹은 집에 부를 축적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함께 비교해서 나올 때 매몬은 사람이 충성을 서약하는 한 실존으로서 인격화된다. 매몬은 신뢰와 소망을 요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시간과 열정들을 명령한다. 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돈은 "... 우리를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가 종이 되어 그 법에 얽매이게 하고 그 목표에 우리를 굴복시킨다" (2).

필요인 염려 (6:25-31)

6:25. 이 다음 구절들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강조되는 명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예수께서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진리는 성경과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는 삶에 불필요한 방해물이다. 요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들을 열거하신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의 기본이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필요들이 중요한만큼, 예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의 청중들에게 수사적 질문을 던지신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분명 그 대답은 "예"를 내포하는 것인 반면,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는 6:33절에 가서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밝히신다.

6:26.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돌보심을 가르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그 실례를 드러내신다. 모든 사람이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 것을 잘 안다. 어떤 비유도 완벽할 수는

2) Jacques Ellul, Money & Power. Trans. LaVonne Neff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84), 76.

없다. 왜냐하면 새들도 가뭄과 기근의 시기에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 공급하신다는 점이다.

6:27. 염려가 해롭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수사적 질문을 던지신다. 그 질문은 청중들이 염려의 무익함을 이해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통찰은 수학적인 것이다: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더 길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다; 즉 염려는 많은 경우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

6:28-29.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 세계 역시 의복은 매우 중요했는데 보호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능했다. 의복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시각적 힌트였다. 긴 자주색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천조각들로 이어 만든 의복을 입은 사람들과 매우 다른 취급을 받았다.

6:30. 예수께서는 솔로몬 왕의 의복과 백합화를 비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피었다가 쉽게 지는 꽃들보다 제자들의 의복에 더욱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6:31-32.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자주 이방인들은 자주 부정적인 행동의 예로 나타난다. 이 구절이 이러한 예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살이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도인 삶의 목표 (6:33-34)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공의 (의)에 굶주리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로 나타난다. 공의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노력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공의는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발생할 때, 그 굶주림은 채워지고, 헐벗은 자는 입혀지고, 나그네가 환영받고, 환자와 수감자가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다 (마 25:35-36). 염려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수행할 때 불필요한 것이다.

핵심 의미

물질적인 소유에 빠지게 되면 광고가 우리를 조절하며 더욱 큰 것이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빠르고 더 최근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예수님의 도전은 간단하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보낼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매몬인가?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대답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했던 것으로부터 유익과 격려를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다, "...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11).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신문처럼 헤드라인을 작성해서 포스터로 만들어라: "검은 화요일: 월스트리트 무너지다, 1929년 10월 29일." 포스터를 반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역사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설명들로 각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질문하라: 지난 몇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는가?
2. 엔론 (Enron)과 같은 회사가 무너지는데 있어서 탐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주목하라. 탐욕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제시하라: "어떤 것들, 예를 들어 부를 얻기 위한, 혹은 갖기 위한 지나친 욕망;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 이번 과는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에 대해 재고하도록 도전하는 것임을 반원들에게 말하라.

학습인도

3. 마태복음 6:19-24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게하라. 반원들의 삶 속에서 가치있는 "것들" 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라 (물질적인 것들, 관계, 그리고 정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각각을 칠판에 기록하라. 질문하라: 이러한 "보물들" 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의 참된 보물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좀과 동록"에는 무엇이 있는가?
4. 학습공과 "성길 것인가, 성김을 받을 것인가(6:19-24) 에서, 저자는 우리가 이 보물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 눈의 영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반원 중 한 명이 자원해서 창세기 3:1-6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열매의 무엇이 유혹했는가? 이 유혹의 이야기는 눈을 영혼의 등불이라고 예수께서 진술하신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5. 칠판에 기록한 "보물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소유 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예들을 반원들이 나누도록 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6:25-32절을 읽게하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무엇인지 경청하도록 하라 (염려). "염려"의 동의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라, 그리고 반원들이 말하는 것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걱정, 불안, 관심, 두려움 등). 질문하라: "염려"는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6:28-30절을 읽게하라.
7. 마태복음 6:33-34절을 읽어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먼저 구할 것인가 나중에 구할 것인가 (6:33-34)" 표제 아래의 두 번째 문단의 이야기를 말하라. 그 이야기는 오직 기념품들을 구하며

다니는 여행객들에 관한 이야기다. 질문하라;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가?

적용 격려

8. 반원들에게 그들의 집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들고 나올 것 같은지 말해보도록 하라. 반원들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가치가 그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라. 이번 주에 가장 가치를 둘 것들의 목록을 미리 작성해보도록 권하라. 가장 가치를 둘 것은 물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이다.

[제 8 과]	옳은 선택을 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7:1-2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7:1-29</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요구한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첫 눈에,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 5-6장과 연결되지 않는 다양한 교훈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읽으면 이 교훈들은 이전의 가르침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강조하는 것임을 알게된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마 5:3-48),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 (마 7:1-5). 기도와 돌봄이 이전의 강조점이었던 것처럼 (6:7-15, 25-32), 다시 한번 7:7-11절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5:3-12) 끝부분에서 일련의 경고로 틀이 잡혀 있다 (7:13-27).

예수님의 이전의 가르침들과의 연결들은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더 작은 것으로 더 큰 것을 비유하는 랍비식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7:11). 예수께서는 또한 생생한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 티와 들보, 떡과 빵, 무화과와 엉겅퀴,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과 같은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그러한 시각적 언어로 예수님의 청중들은 그들의 귀로 설교를 들은

후 한참이 지나서도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은 또한 제자도의 변화된 행동들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떤 행동들은 부정적 명령으로 "하지 말라" (7:1, 6)로 틀어 잡혀있다. 다른 것들은 긍정적 명령으로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라 등이다 (7:7, 8, 13).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준다.

본문해석

비판하는 것과 비판받는 것(7:1-5)

7:1-2. 예수께서는 분명하고도 간결한 명령으로 "하지 말라" 고 하신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는 모든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금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몇 구절들 내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판단하라고 격려하신다 (7:15-16). 예수께서 의미하신 것은 거의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동기들을 아실 수 있고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과 관련된 구분하시는 심판은 그물과 고기의 비유 (13:47-50)에서 쉽게 묘사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다.

판단을 주고 받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반향을 듣는다. 신적인 판단을 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이미 용서의 상호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다 (6:14-15). 7:2절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대신 넣는 것으로, 독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희망을 간파하게 된다: "너희의 [용서]하는 그 [용서]로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용서]로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 아닌 용서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다.

7:3-4. 예수께서는 여기서 해학적인 장면을 묘사하신다. 자기 눈 속에 커다란 들보 (큰 죄)가 박힌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작은 티 (작은 죄)가 눈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장면은 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강조점은 매우 정확하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며 자만이다.

7:5.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티를 (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신다. 하지만 그 티를 제거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한다. 사람이 고결하고 제자도의 가치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다.

개와 돼지 (7:6)

여기서 개는 미련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은 배로써 하나님을 삼는 거짓 일꾼들을 가리킨다. 바울도 거짓 일꾼을 "개"라고 하였다.(빌3:2), 거짓 일꾼의 특색은 (1)먹는 것과 대접 받는 것을 탐하여 다님이요(빌3:19) (2) 개가 보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것인 줄만 알고 물고 찢는 것과 같이 거짓 일꾼들은 복음이 보화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육체나 치는 길로 삼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실상은 그 길을 해한다.

돼지 역시 개와 비슷한 의미의 비유이며 특히 돼지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동물이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하고 응답받기 (7:7-11)

7:7-8. 여기에 다시 기도에 관한 부탁이 나온다. 여기 기도에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1)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함이다. 그런데 이 명령사들이 모두 다 현재 시간의 명령사로 되어 있으니 이는 모두 그 행동의 계속성을 표시한다.

(2) 어김 없이 주님을 믿고 기도할 것: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 이 말씀들은, 주님의 신실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

7:9-11. 이 귀절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작은 것으로 큰 것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는 논법이 다시 보인다. 죄인인 너희도 자식의 청구를 들어주거든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말할 것이 무엇이라?

여기서 '좋은 것'은 영적인 것들이니 곧,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 아닌 다른 것들일 수도 있다. 누가 복음에서는 간절한 기도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 있는 말씀이다 (눅11:13).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 (7:12)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에서 전,후 문맥과 연결시키기 어려워 하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윗말씀과 어떤 관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 귀절의 우리말 번역은 너무 의역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의 원문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곧,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적극성을 가지는 황금률, 혹은 도덕률이다.

이 "황금률"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동정의 마음을 팔복에서 강의하셨다. 하지만 동정은 단지 첫

걸음일 뿐이다; 제자들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반영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방법을 아시는 것처럼 (7:9-11), 제자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택할 길과 떠날 길 (7:13-14)

이 부분부터 예수님의 설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 혹은 당장 보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것에 대한 비유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따라가는 길이 함부로 범죄하는 생활에 비해서는 제한이 있고 절제가 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얻는 길이니 그 길을 가는 도중에도 생명과 희열이 있고 그 길을 다간 후에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 (7:15-23)

7:15-16a. 예수께서는 가르침의 핵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거명하신다. 그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부르신다.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가장하지만 ("양"의 옷) 그 마음 속 동기는 악하다 ("노략질 하는 이리들"). 설교 전체에서 발견되듯이, 마음의 동기는 참된 제자도의 열쇠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비록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동기를 숨기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를 판단할 수 있다. 마음의 동기는 점차적으로 꽃이 피어서 외적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매우 자세히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지자의 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한 영역으로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탐욕, 자아, 그리고 자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7:16b-20. 예수께서는 선하고 나쁜 행동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비유로 연결하신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행동은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의 열매이며 마지막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강조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사람은 나쁜 나무나 좋은 나무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과 행동 (열매) 의 선택을 하는 각 사람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7:21-23.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잘 가장을 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은 그들의 정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들의 열매조차도, 예를 들어 설교, 귀신을 내 쫓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판단하는 우리의 눈과 능력이 항상 인간의 부족함과 부패함에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마 7:1),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내가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속을 수 있고, 하나님은 속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잘못을 제거하실 것이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7:24-27)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신다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자 (잠언 10:1; 14:1; 15:20).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야보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지혜로운 자와 비교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있다.

핵심 의미

이 구절에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간단하고, 좁고, 곧바로 가는 길을 펼쳐 놓으셨다. 제자도의 지도는 항해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분명하고 실재적인 길이다. 문제는 제자도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다. 한 작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묘사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두번째로 가장 사용되지 않는 책은 성경이다. 성경은 거룩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좋은 의도와 관심으로 인해 베스트셀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은 며칠만 읽어도 주님의 뜻을 이미 알게될 것이고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기쁜 소식 중의 하나는 예수께서는 올바른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예수께서 신학적인 이론들의 상아탑 속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공평과 자비를 실행하시며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것이다. 산상설교의 분명한 가르침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넘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액자에 든 가족 사진, 거울, 그리고 책 한권을 책상 위에 진열하라. 반원들에게 책상 위에 진열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성경의 상징,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보게 하라. 다음의 가능한 대답들을 고려하라:

* 사진 = 성경의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예들과 부정적인 예들.

* 책 = 예수님의 가르침

* 거울 = 성경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

2. 이번 수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상호 관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선택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도전하실 때도 거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하라.

학습 인도

3. 짐 데니스 박사로부터 인용한 다음 글을 읽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우주에 편재하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으로 그의 목적들을 드러내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4. 학습공과 첫 번째 요점 "비평, 혹은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 을 칠판 위에 서라.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7:1-6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단체로서 본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반원들에게 흙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싱크대에 가서 거울을 보며 물로 씻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라. 질문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것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5. 학습공과 두 번째 요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7:7-11)" 을 칠판에 써라. 반원 중 한 사람이 7:7-12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기도의 목적에 대한 강조점을 주목하라 - "기도는 영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준비시켜 준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를 각각 설명하라. 질문하라: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거울로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6.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7:12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당신의 삶이 좀더 쉽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황금을"을 적용시켜 볼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7. 학습공과 세번째 요점을 칠판에 써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7:13-27절에 있는 4개의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한 사람이 7:13-14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끄는 좁은 길이 되게 하는가?

8. 한 사람이 마태복음 7:15-20절을 읽게하라. 자원자들을 뽑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말씀들을 읽게하고 그 구절에서 설명되는 열매의 특성과,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간단한 의견을 내놓게 하라: 잠언 11:30; 예레미야 6:19; 갈라디아서 5:22-23.

9. 한 사람이 7:21-23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소주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반원들이 보게 하라.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라. 질문하라: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순종함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10. 마태복음 7:24-27절을 읽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필요성을 강조하라.

11. 3번에 있는 데니슨 박사의 인용구를 다시 한번 읽어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고, 이번 수업은 순종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반원들이 그들의 삶 속을 살펴보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격려하라. 반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소한 한 가지씩 그들의 삶에 실천할 가르침을 자기의 노트에 적어보도록 하라

[제 9 과]	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8:18-2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8:18-22</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인간의 가장 당연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도, 예를 들어 문화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집과 가족보다도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놓을 것을 요구하신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특성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묘사할 수 있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복음 8장은 산상설교 (마 5--7장) 이후 즉시로 예수님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설교는 예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마치셨다는 신호를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 7:28-29).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다섯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5--7장은 그 처음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10:5-42; 13:1-53; 18:1-19; 그리고 24:1--26:1). 각 부분은 위 문장과 비슷한 형태로 끝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부분은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들, 즉 도덕, 사명, 왕국, 교회 훈련,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17-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20).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철두철미한 요구가 생생하게 나타난다.

산상설교 이후, 예수께서는 다시 그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전에 예수께서는 그 지역을 두루 여행하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4:23-24). 온 갈릴리 지역에서 군중들이 와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기회가 주어졌다. 철두철미한 제자도의 길에 대한 부르심이 주변사람들과 내부인들, 즉 제자들 모두에게 같이 주어졌다.

오늘 핵심구절 이전에 예수께서는 4장에서처럼 다시 그의 은혜로운 능력을 나타내시어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을 치유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병환자 (8:1-4),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 (8:5-13),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8:14-15). 그날은 더욱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는 사역이 많았다.

본문해석

주변사람들과 내부인들 - 군중과 제자들 - 철두철미한 제자도로 부르심 (8:18)

마태복음 8:18-22절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잠재적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말해준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운 자들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준다. 한 서기관 - 주변인- 과 한 제자 - 내부인은 제자도의 철두철미한 특성을 접했다. 그 마태의 독특한 이야기 전개 방식은 주변인과 내부인의 주제를 강조한다. 동일한 이야기로 보이는 누가복음 9:57-62절은 마태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비슷하지만, 누가는 그 질문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즉 주변인물과 내부인 사이의 비교를 볼 수 없다. 마태복음은 극단적인 제자도의 엄격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매우 일상적이고 도전적인 용어로 제자도의 엄격성을 묘사하셨다. 이는 거주, 가족,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들까지도 관련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질문을 한 두 사람에게 확증한다.

그 에피소드는 예수께서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인식하고 "저편으로 건너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 8:18)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헬라어 본문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영어 번역본들은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기록한다 (GNT, New Living Translation). 이는 너무 많이 상상한 것이며 마태복음의 앞장들에서 제시되었던 주변인물들과 내부인물들의 흐름을 무시한 번역이다. 이 때 예수께서는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4:18-22) - 그리고 그들은 무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것 (5:1)을 듣기 위해 모였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1-14절 전까지는 열두제자를 지칭하시지 않으셨다.

마태는 분명하게 제자도의 엄격한 요구에 대한 두 개의 특정한 반응을 이했다. 하나는 군중들의 반응이었다. 그 반응은 관심을 가지는 것, 매료되는 것,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것까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두번째는 제자의 반응이었다. 그 반응은 극단적인 제자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둘 중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든다.

극단적인 제자도가 요구된 한 외부인 (8:19-20)

철두철미한 제자도의 특성과 맞닥뜨린 첫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한 서기관 사이에 있었다. 여기에서 그 질문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하고 있는, 하지만 극단적 제자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한 외부인이었다. 일어난 문제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1) 바로 응답하는 것과 (2) 제자들이 어디에서 쉬고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이해였다.

8:19. 마태는 그 첫번째 질문자를 "서기관" 이라고 기록한다 ("율법 교사"). "서기관"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의 결심을 나타냈다. 그 서기관의 주장은 마태복음 26:33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에 나타난 시몬 베드로의 자랑의 전조처럼 보인다. 아마도 베드로처럼 이 서기관은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약속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요구한다.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거부당하는 길이다. 그 서기관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다.

8:20. 그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극단적인 제자도에 헌신하는 결과들 중의 하나를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극적으로 들판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쉴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셨다. 예수님 말씀의 잠언적 특성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한 때에는 가정과 집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적도 있었고 (8:14),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었다. 예수께서는 집과 가정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철두철미한 제자도의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극단적인 제자도가 요구된 내부인 (8:21-22)

이 구절의 두 번째 만남 속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을 미룰 수 있을 것같은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제자"와 대화를 나누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과 가족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이 말씀을 가족과 가족의 관계들에 대한 다른 곳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생각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종종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헌신을 별로 좋지 않은 관점에서 표현하신다. 최소한 예수께서는 가족관계는 제자도의 극단적 요구들 다음에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오심은 가족들을 나누고 서로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10:34-39)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밖의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가족을 물리치셨다 (12:46-50). 후에, 베드로는 그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주장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이것은 극단적인 제자도의 일상이라고 평이하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가족을 떠나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27-30).

이러한 일들과 말씀들은 가족을 향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말씀들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마가복음 7:9-13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돌보셨고 자신이 돌아가신 뒤에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계속적인 돌봄을 제자에게 부탁했다 (요 19:25-27).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식되었고, 각각 도덕적, 윤리적 올바름과 제자도의 극단적인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는 강력한 서신서들을 썼다. 예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혼동하시거나 동요되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단적인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와 사명적인 의미에서 제시하셨다. 생물학적 가족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극단적인 선택들과 헌신들이 요구될 수 있다.

8:21-22. 중요한 가족 일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제자의 요구는 충분히 타당하게 보인다. 믿음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장례식은 자선금을 내놓고 공중 기도를 하는 것과 동등한 경건의 행위로 보았다. 자식은 그의 부모를 매장하는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이러한 일을 마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거칠게 보인다. 하지만 그 요구는 실재 일어난 책임이라기 보다는 잠재적 책임성임을 반영한다. 그 제자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을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돌보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미루는 제자도는 심한 책망과 예수님의 도전을 받았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경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조차도 극단적 제자도의 요구들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제자도는 예수께서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9:9-13), 다르게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장하신 것 (9:16-17), 그리고 "귀신의 왕"과 한 통속이라고 고발 당한 것 (9:16-17)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견해를 스스로 무시하신 분으로서 도전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핵심 의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 받은 것이다. 극단적인 제자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헌신을 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그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머문다. 제자도의 극단적인 요구들을 나타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제자도 없는 은혜,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극단적인" 이라는 단어를 써라. 질문하라, 당신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떤 행동이 극단적으로 보이는가? 그것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마도 두려움, 당당함). 어떻게 들리는가? (아마도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당신을 용서합니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2. 이번 수업은 제자도의 극단적인 본질을 생생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지적하라. 동시에 그런 제자도로 보이고, 느껴지고, 들리는 실례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3. 학습공과에 있는 "떨어져 있을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강의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8:19-20절을 읽게하라. 다른 반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나타난 극단적인 예들을 주목하게 하라. 말씀을 읽은 후 반원들이 말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5. 질문하라, 이 본문은 제자도에 따르는 댓가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는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것의 극단적인 본질을 더 깊이 추적하기 위해서 반원들이 서로 나누도록 하라. 이 구절들에 대한 학습공과의 내용과 이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사용해서 반원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마태복음 15:3-6절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8:21-22절을 읽게하라. 두 구절을 다 읽은 뒤에 두 구절 사이에 서로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라. 8:21-22절은 잘못 놓여진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놓여진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는 의미를 함께 탐구하라.

적용 격려

7. 반원들에게 학습공과에 나오는 질문을 참조하도록 하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특히 질문 1, 3, 4, 그리고 6번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8. 학습공과에 나오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회 회원" 부분을 읽거나 요약하라.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질문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9. 제자도의 댓가를 치를 준비가 되있는 각자가 되도록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p>[제 10 과]</p>	<p>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p>
<p>핵심본문 마태복음 9:35-10:15, 24-31</p> <p>배경 마태복음 9:35-11:1</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르침들을 주신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며 따랐던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내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복음 10:5-42절은 예수님의 다섯 개의 주된 교훈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다. 여기에서 교훈의 초점은 사명에 관한 것이다. 산상 설교 (마 7:28)의 결론으로서 마태의 전환 화법인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의 사용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끝나고 다른 활동의 내용으로 옮겨간다는 신호를 준다.

예수님의 열두제자 지명과 (10:1-4) 세상에서 사명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강조한다. 8장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9장 전체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있던 두 명의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8:28-34);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9:1-8); 한 세금 징수원을 제자로 부르시고 (9:9);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9:10-15); 종교적인 전통과 금식에 관련된 외식을 비판하고 (9:14-17); 죽은 소년을 살리시고 (9:18-26); 소경을 고치시고 (9:27-31);

병어리가 다시 말하게 하셨다 (9:32-34). 이 부분 전체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가 4:23-25절, 그리고 다시 9:35절 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일반적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9:35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께서 그이 제자들이 그의 사명에 헌신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확장,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해석

오늘의 핵심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로 특별히 따로 부르시시고 교훈을 주는 것을 강조한다. 마태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복음을 전파" 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10:7).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명령하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10:9) 라고 하신다. 철저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행하고, 사명에 관한 제자로서의 그들의 신분을 이해한다.

9:35-36. 열두제자를 지명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9장의 사역들이 "모든 성과 촌"에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한다. 4:23 과 9:35의 유사성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사명과 선포에 대한 이 두 가지 묘사는 마태복음 전체의 틀과 같다. 4:23절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요약과 함께 놀라운 이적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군중을 끌어 모았다. 우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동사형태이다. 예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 대해 느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민수기 27:17; 에스겔 34:1-6, 스가랴 10:2를 보라) 과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떼에 대한 설명은 마태의 본래 청중들에게 쉽게 전달되었다. 우리들 모두 돌보는 자 아무도 없는 위험한 들판에 남겨진 양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를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사방에서 공격받는 양떼가 압도적인 힘으로 포악하게 다가오는 짐승들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그려준다.

9:37-38. 예수께서는 추수할 들판과 일꾼들이 필요한 광경을 그이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추수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가 심판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반명 (계 14:14-20), 여기서 시각화된 수확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엑 관한 것이다.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소집하심 (10:1-4)

예수께서는 이전에 자신을 따르라고 다섯 명을 부르셨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마 4:18-22), 그리고 세금 징수원인 마태 (9:9). 이제 예수님은 열두제자를 소집하시고 이름을 부르셨다.

10:1. 마태는 여기서 열 두 제자를 처음 언급하고 있으나, '열 두 제자' 앞에 나오는 정관사 '그'(투스)는 그들이 이미 선택 받았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본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산상 수훈 이전에 산에서 밤을 세워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택하신 다음(막 3 : 13-18 ; 눅 6 : 12-16)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 시키신 후에 비로소 파송하신 것으로 나타난다 (막 6: 7-13; 눅 9 : 1-6). 한편 '12제자'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마 19 : 28), 12지파의 족장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였다면, 12제자는 이스라엘 민족 뿐 아니라 온 세계 민족으로 구성될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라 할 수 있다.

10:2-4.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아포스톨로스)란 뜻으로,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사신' 혹은 '전권대사'(Ambassador, 엡 6. 20)를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전파를 위해 파송된 12제자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사명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심 (10:5-15)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한 한계와 준비에 대해서 긴 교훈들을 주셨다. 본질적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역하셨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같은 종류의 일들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10:5-8. 예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인가? 그것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먼저 유대인들 중 남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이방세계에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었다(사 49:6).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기 때문이다(삼하 7:13-16; 롬3:1, 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완전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모두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덧입혀 주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옳은 것이다.

10:9-10. 본절은 돈을 일절 가지고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라기 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이용하여 돈주머니를 채우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최소한의 물건만을 허용하신 것은 전도 여행이 다른 여행과는 다르게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꾼이 제 먹을것 받는 것이 마땅" 하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마 9 : 38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신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 생필품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눅 10:7).

10:11-15.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는 거처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므로서 오는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며, 제자들이 거처했던 집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대해 제자들이 불편해 했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여 복음전파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의식적 결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이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때는 그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린다고 간주했다 (Eder Shein). 그러므로 본절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의 의미를 넘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을 이방인과 같다는 표시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취해지는 행동이었다 (Calvin, Plummer).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와같은 상징적 행위를 한 바 있다 (행 13:5).

16--23절은 예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극단적인 제자들이 당할지도 모를 바로 그 적대감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공동체에 평안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미혹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적대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 교훈의 중심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사명에 관한 제자들의 신분 (10:24-31)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기대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극단적인 제자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정리하신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마 10:24).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는 마태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동체의 리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었던 자들이다.

10:24-25. 만일 선생이 조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다른 반응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적들이 주님을 마귀라고 부른다면 왜 그들이 그 종을 선하다고 하겠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극단적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과 같은 모욕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사명에 관한 제자들의 신분은 예수님의 운명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

10:26-31. 핵심구절에서 마지막 내용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적대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교된다. 제자들은 은밀한 교리들이나 신비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복음을 크고 단순하게 선포해야 한다. 제자들은 단지 "몸을 죽이는" (10:28) 박해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보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10:29-30). 사명에 관한 제자들의 신분은 혼동 가운데 평화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도전하신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저번 과뿐만 아니라 이번 과도 참된 제자 - 예수를 따라가는 자 - 가 치러야 하는 댓가를 공부한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2. 이번 과의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읽어라.

학습 인도

3. 한 사람이 마태복음 9:35-10:4절을 큰 소리로 읽게하라.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을 사용해서 설명하라.
4. 학습공과에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 (10:5-15)" 의 내용을 사용해서 본 과의 도입부와 배경을 설명하라. 주의: 당신이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반원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라. (당신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읽어야 할 성경구절을 반원들에게 미리 할당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5.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거나 그들이 나아가서 받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달콤한 말로 포장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10:24-31절을 읽는 동안 절반의 반원들이 예수께서 예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도전들이 무엇이었는지 주목하게 하라. 나머지 절반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확신과 격려가 무엇이었는지 경청하게 하라. 반응들을 듣고 칠판에 그 목록을 기록하라.
6. 예수께서는 자신이 기꺼이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9:35 와 11:1을

읽고 예수께서 본으로 행하셨던 것을 가리키라.

적용격려

7. 학습공과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해서 반원들이 본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라.
8.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용기와 의지를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p>[제 11 과]</p>	<p>믿음은 따르는 것이다</p>
<p>핵심본문 마태복음 16:13-17, 21-26</p> <p>배경 마태복음 16:13-26</p>	<p>학습주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결정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마태복음 11:1-16:12절에서 이번 과목의 핵심본문이 되는 구절들로 인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11장의 앞부분 몇 구절은 감금당한채로 아직도 알고 싶어하는 침례 요한은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했다(마 11:2-3).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지속되는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를 말씀하셨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요한이 복음서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훌륭한 칭찬을 하셨지만 천국에서는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 11:11). 마태는 14장에서 헤롯 안디바의 손에 죽은 요한을 기록하고 있다.

11장과 14장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공급하심,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했다. 이 장들에서 마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1-23)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은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 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14:13-21; 15:29-36), 끈질긴 가나안 여인을

원거리에서 치유하신 것(15:21-28)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단말마적 행동은 요한이 일찍이 질문했던 “그가 당신이오니까?” (11:2)를 반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되는 추측을 야기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되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6:6)는 재치 있는 대답으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고를 하셨다. 이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의 증폭되는 갈등과 제자들의 지속되는 우둔함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자들의 지속적인 이해 부족은 핵심본문의 중심이 된다.

시몬 베드로는 핵심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마태의 베드로에 대한 보고는 유일하면서도 복잡하다.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는 베드로에 대하여 훨씬 더 동정심 있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마태는 베드로를 대단한 통찰력을 지니고(16:16); 특별한 칭찬을 받고(16:17-20);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에서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한(14:28-33) 대표적인 모습으로 칭찬하고 있다. 동시에 마태는 베드로의 나약함, 우둔함,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한 모습도 그리고 있다. 마태는 베드로를 때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문 해석

마태복음 16:13-17, 21-26절의 핵심본문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16:13-17)

16:13-14. 예수님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분봉왕 빌립과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 지역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갈릴리의 외곽 지역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가장 먼 여행길을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의지로 이동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27-30절의 연관된 구절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을 기억했고, 이것은 아마도 메시아적 의미를 띠고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보여 준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추측되는 침례 요한; 메시아의 오심에 앞선 선구자로서의 엘리야(17:10-11절을 보라);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한 명. 마태가 유일하게 예레미야를 포함시킨 것은 몇몇 관찰자들이 예수님이 옛 선지자들의 모형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선지자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다.

16:15-17. 질문이 더욱 개인적인 것이 될수록 대답은 직접적이고 숫자도 적어진다. 그 질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베드로는 A+ 대답을 가지고 앞으로 나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16).

베드로는 메시아-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이-가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처럼 행동하고 말할 것으로 이해하고 기대했던 것 같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옛날의 왕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군하여 그토록 증오하는 로마인들을 쫓아낼 영웅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현명하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벳새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 뒤에 두었는데(마가 8:22-26), 예수님은 맹인이 분명하게 보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그 맹인을 만져야 했다. 베드로는 그 맹인처럼 부분적으로 보았지 완전하게 본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통찰력을 칭찬했고(마 16:17)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을 인정하셨다.

비록 핵심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통찰에 대한 보상을 선언하신 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분명한 교차점을 보여준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에 대한 현명한 언어 유희는 그리스어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아람어에서는 완전한 것이다(페트로스 = 베드로, 페트라 = 그리스어로 바위; 게바 = 게바스, 그리고 게바 = 아람어로 바위). 바위로서 베드로에 대한 비유는 가장 흔하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또한 베드로의 우둔함과 이 바위가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16:23).

여기에서 다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특별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14:22-32절에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여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베드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여 책망을 받게 된다(16:23).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와 함께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책임을 주셨다. 이러한 권세의 표적은 초기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위치를 말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권세가 주어진 다른 본문으로 인해 그들은 단련되었다(요 20:23; 엠 2:20; 계 21:14).

예수님을 따라가기: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기 (16:21-26)

마태복음 16:21-26절에서 예수님은 세 개의 고난 예언가운데 첫 번째 것을 말씀하셨다(마 17:22-23; 20:17-19절을 보라; 마가복음 8:27-9:1; 9:30-37; 10:32-45절과 비교하라). 예수님의 배신당함, 체포, 재판, 매 맞음, 처형당함,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근본적인 제자도의 본질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16:21-23.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우화, 수수께끼, 또는 가시가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갖고 있는 기대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밀쳐내고 날카롭게 충고를 하도록 했다. 마가가 간접화법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마 8:32),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서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 16:22).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갈등에 처해 있는 자신을 드러내었다. 마태가 고집어 낸 6:16절과 16:22-23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극적이면서도 명확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던 제자라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제자도의 본질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였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아무런 보호자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품어줄 제자가 필요하신 것이다.

16:24-26. 예수님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기, 그리고 가까이서 따라오기와 같은 조건의 제자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16:24). 예수님은 잠재적인 제자들에게 역설을 보여 주신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하려면 잃을 것이라는 역설은 많은 잠재적 제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뒷걸음치게 한다. 마태는 이미 예수를 따르려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몇몇이 근본적인 제자도의 엄격함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여주었다(8:18-22).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제자도의 필수 요소들이 어려우면서도 직관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21세기의 많은 사람들, 서부교회의 전통도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현대의 감수성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훈계는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처형하기에 좋은 방법으로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십자가 처형은 반란, 불복종과 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들은 대부분은 십자가 처형과정과 로마의 재판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자신을 죽이는 수단을 짊어진다는 것은 잔인한 처형 과정에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이였다. 게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간다는 것은 다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 역할을 하도록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예수님은 이 잔인한 과정을 자신이 묘사한 근본적인 제자도의 중심에 놓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처형당하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16:27-28), 동일한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죽고 예수님으로써 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제자도의 본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이 진리를 이해하였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19-20).

핵심 의미

근본적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과 목적을 밀접하게 따르라는 엄격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준다. 교회가 기독교를 빛, 파트 타임, 주로 주말에 행해지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소개한다면 근본적인 제자도의 진정한 본질은,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잃게 된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을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다.

20세기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자신의 고전인 제자도의 가치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다, “믿음은 순종이 있는 곳에만 실재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된다.”¹ 본회퍼는 근본적인 제자도란 단순한 믿음의 인정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깊은 곳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근본적인 제자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목적에 밀접하게 따라간다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해하게 된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나누어보게 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보게 한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보게 한다. 이번 과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 공부 안내

2. 학생용 교과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마태복음 16:1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싼 환경을 묘사한다.

3. 사람을 지정하여 마태복음 16:13-14절을 읽게 한다. 학생용 교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

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을 포함하여 이 말씀을 설명한다.

4. 누군가에게 마태복음 16:15-17절을 읽게 한다. 마태복음 16:13-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확인하도록 한다(“인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역할에 대한 부분임을 지적한다. 이 이름들을 학생용 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용의 “본문 해석”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왜 베드로의 말은 그렇게 혁명적이었는가?

5. 누군가에게 마태복음 16:21-23절을 읽게 한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 당하고 죽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 시점까지 기다렸는지 질문한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질책하는데 개인적으로 동기를 받았는가? 베드로의 예상 가능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6. 누군가에게 마태복음 16:24-26절을 읽게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잘 보이는 벽 또는 칠판에 십자가를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들을 나열해보도록 한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한다. 십자가 위에 제안을 기록한다. 학생들이 그 제안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시간을 준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용 공과의 “대답을 듣기”와 “이 과목을 삶에 적용하기”, 그리고 인도자 지침용의 “핵심 의미”에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

적용 격려

7. 다음의 학습 사례를 읽는다:

스티브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스티브는 극심한 가난과 사람들의 소망 없음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보험 회사를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선교여행을 책임지고 계획하는 선교 단체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이것이 그를 위한 하나님 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신은 스티브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8.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로 마무리한다.

¹ 디트리히 본회퍼, 제자도의 가치 (뉴욕: 사이먼 & 슈스터, 터치톤 북, 1995), 47

[제 12 과]	참되어라, 은혜를 보여라, 겸손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23:1-1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23:1-36</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믿음을 참됨, 은혜로움, 겸손함으로 실천해야 한다.</p> <p>탐구질문 왜 종교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위선적이고, 강압적이고, 고집불통-즉 참된 제자도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내 인생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특별한 내용과 장르, 또는 문학적 형식을 전부 묘사하고 있다. 문학적 형식으로서 신약 성서의 복음서들은 오늘날의 다양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다. 좋은 소식의 이야기들이 네 권의 복음서를 넘나들며 분명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편, 각 복음서는 각자의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말하도록 구성된 특별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메시아 -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었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믿음의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공동체의 경계선에서 분리되고 소외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의 교회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압제자는 토라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적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회의 뛰어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마태의 공동체 또한 근본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격한 말들과

가르침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유대주의 -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비평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함 - 내부로부터의 비평이었다. 이 구절들은 오늘날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마태가 강조하는 원리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잘못된 경건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기본적인 대조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의 비교가 아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은혜롭고 겸손한 종교인들과, 거짓되고 비판적이며 거만한 종교인들과의 비교다. 마태의 좋은 소식은 외적인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하는 사람들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16:26절과 22:46절 사이에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변화(마 17:1-8); 고난의 예고(마 17:22-23; 20:17-19);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 18장);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심(19:1); 그리고 질문, 우화, 치유. 마태복음 23장에서 핵심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21:1-11); 성전에 대한 질책(21:12-17); 무화과나무를 저주함(21:18-22); 성전 안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질문과 대답들(21:23-22:46)이다.

본문 해석

핵심본문은 예수님이 위선적이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적 사람들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참되고 은혜롭고 겸손함을 따라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대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본문은 예수님이 종교적 율법주의자들과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일련의 엄격한 분노들을 보여주고 있다(23:13-39).

참된 제자도는 위선자안 율법주의자의 실수를 거부한다 (23:1-7)

23:1-4.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유명한 종교적 위선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경건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보다는 율법의 문자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 복음서에는 신실한 바리새인들의 분명한 예가 있었지만(예를 들어 요한복음 3:1; 19:3절의 니고데모), 마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종교적 관점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1세기에 존재했던 몇 가지 유대인의 당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그룹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훨씬 더 관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을 믿었다. 그들은 또한 성경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토라, 선지서, 그리고 문학작품도 포함되었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은 토라의 다섯 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부활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마 23:2),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율법의 권위 있는 선생님이로 보았던 것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인데, 그들 자신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되었던 것 같다. 마태 당시의 공동체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믿음의 유대인(교회)의 주요 적대자이며 압제자이었던 것 같다. 독자들은 A.D.70 년의 성전 파괴로 이어지는 당시의 회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다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마태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그들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기관은 직업적인 역할인데, 율법을 복사하고, 암기하고, 구분하는 일을 했다. 바리새인은 특정한 믿음을 가진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이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서기관이 될 요건은 아니었다. 마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갈등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하기 위해 함께 왔었다(15:1-6). 가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였다(16:5-12절을 보라). 이것은 오히려 21세기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행동을 같이 하기로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놀라운 동맹이었다.

23:3-4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은 두 형태의 종교적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비난하셨다. 이러한 두 얼굴의 종교적 행위는 바리새인을 우선자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23:5-7. 두 번째의 종교적 오류는 율법의 요건들을 완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이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로 율법을 신실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였다. 이런 형태의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비평은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6:1) 그들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경문을 넓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유대인들이 팔 또는 이마에 성경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신명기 6:4-9; 11:15-20). “옷술을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옷 모서리에 달았던 파란색 실로 끈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민수기 15:38-40; 신 22:12). 예수님 자신도 자기 옷에 옷술을 달았다(마 14:36), 그러나 그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이유로 신실함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셨다.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하길 좋아했고(23:6), “랍비”라는 호칭을 소중히 여기면서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23:7). 23:2-4절에서 언급된 위선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정과 칭찬, 그리고 특권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참되지 않았고, 그들은 은혜롭지 않았으며,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에 있었다. 11:28-30절에서 예수님은 명예를 지기에 쉽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할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셨다.

더 이상 분명한 대조와 원리가 있을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제자도는 예수님의 참되고 겸손하며 은혜로운 정신을 품는 것을 요구한다. 그릇된 경건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단지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다(6:2).

참된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은혜롭고 겸손한 하나됨을 추구한다 (23:8-12)

자신의 반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등주의, 즉 마태복음이 의도했던 교회의 차별 없는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교사로서, 인도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로 남아 계신다.¹ 예수님은 지도자의 호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23:8-10.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앞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예레미야 31:34). 하나님께 구속받고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가르침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작은 자에서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서게 된다. 교회 안에서 작은 구분을 위한 공간은 없다(롬 3:23; 갈 3:26-29절을 보라).

8절에서 학생이라는 말의 그리스어인 아델포이를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형제라는 가족성 단어다. “학생”은 경쟁, 고집, 그리고 자만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은 힘과 격려의 원천으로서 서로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9절에 나오는 가족의 비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참된 가장을 인식하라고 격려한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절에서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8절에서 “선생님”으로 번역된 단어와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의도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선생님과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금지할 필요는 없다. 원리는 진정한 존경은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존경의 호칭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성취를 인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예를 쌓아올림으로써 거짓으로 아첨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만과 분노를 촉발시키는 위험을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비록 겸손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해로움이 되는 교만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

23:12.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위대함은 봉사를 통해서 오고, 높임은 겸손을 통해서 온다. 1세기에서처럼 21세기 사회도 정확히 반대되는 태도를 고무시키고 있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자주 오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품위 없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연습으로 이해한다. 교회는 이러한 태도에 면역력이 없다. 11절에서 사용된 “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디아코노스인데, 흔히 집사로 번역되고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호칭이나 명예보다는 오히려 봉사의 기능에 초점을 더 잘 맞춘다.

핵심 의미

1세기 말의 종교 전문가들의 문화와 공동체는 마태의 교회를 폭행했다. 이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의

경중 문제를 무시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심한 요구사항을 부과했다. 어떤 이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다.

교회 구성원이 자신들에게 참되고, 은혜롭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려는데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과 특권을 얻기 위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와 경건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하나됨이 한 선생님,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지도자가 계시다고 일깨워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근본적인 제자로서 참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숭고한 헌신과 위대한 인정을 받게 된다. 근본적인 제자는 우선적이며 율법적인 경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참되고, 은혜롭고, 경건한 봉사에 부름을 받았다.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이 과목의 학생용 공과 소개부분에 있는 라이언의 이야기를 나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라이언을 예수님과 혼돈하게 되었는지 논의한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 역할을 하는지 질문한다.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번 과목으로 인도한다.

학습 인도

2.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3:1-4절을 읽게 한다. 칠판의 왼쪽에 세로로 바리새인이라고 쓴다 (7번을 인지한다). 학생들이 바리새인을 묘사할 단어를 아크로스틱(호칭의 각 글자를 이용하여 묘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나열하도록 한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않는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나뉘었던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긍정적인 단어를 아크로스틱을 사용하여 적는다. 오늘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한다.

3.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3:5-7절을 읽게 한다. 질문,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연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학생용 공과의 정보를 사용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추구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4. 마태복음 23:8-10절을 읽게 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주해”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호칭이라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설명한다. 질문, 그리스도인을 거만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5. 앞서 본문을 읽은 학생들에게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비난을 성경 또는 학생용 공과에서 밑줄을 긋게 한다.

6. 마태복음 23:11-12절을 읽는다. 질문,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슨 조언을 하겠는가? 학생들에게 겸손 조항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칠판에 그 내용을 쓰고 다음 몇 주간 교실에 전시하도록 한다.

적용 격려

7. 바리새인의 반대편인 칠판의 오른쪽에 세로로 제자라고 쓴다. 학생들에게 제자를 묘사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아크로스틱으로 완성하게 한다. 이 두 내용을 비교 및 대조하여 본다.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쪽에 서고 싶은지 결정하게 한다.

8. 하나님께 각 사람이 더욱 참되고, 은혜롭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 한다. 학생들이 교실을 떠날 때,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한다.

¹ R.T.France, 마태: 전도자와 선생님 (그랜드 래피즈: 아카데미 박스, 존더반 출판사, 1989), 257.

[제 13과]	제안이 아닌 명령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28:16-2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28:16-20</p>	<p>학습주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의 명령에 대해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진지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p> <p>학습목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실천해 나갈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명하셨다. 이런 절정의 모습은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수난 다음에 나왔다 - 배신, 체포, 재판, 구타, 십자가 처형, 장사, 부활. 중심이 되는 말씀인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위치와 상태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마태복음 24-25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을 보여주고 비유들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깨어있고 기다리는 것을 강조했다. 어리석은 신부들의 이야기(마태복음25:1-13)와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마태복음 25:14-30)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심판은(25:31-46)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기다리고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태복음 26-2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과 시간에 고난과 죽음을 결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마태는 수난에 대한 마가의 증거인 눈에 띄는 자료들을 따라가고 있다(예를 들어 유다의 배신의 값 26:15).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결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은 마태복음의 특별한 모습이다(27:53-54).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주적이고 지구를 흔들

만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 준다(2:1-4에 헤성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비교해 보라). 마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자기의 상황에 이 사건을 연결시킨다(28:11-15).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자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라고 말한 천사를 만났다(28:6). 천사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실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무덤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예배했고, 가르침을 받았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8:10)

본문 해석

예배: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장소(28:16-17)

28:16 읽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응답을 한 제자들의 태도와 능력의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갈릴리로 여행한 ‘열한 명’의 제자들은 작지만 슬픈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제자들로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섬겼고, 배웠다. ‘열한 명’의 제자들은 유대의 배신과 미련함과 어두움에 경직됐고(27:3-10), 베드로의 배신과 제자들의 버림을 기억했다. 배신과 부인과 실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쉽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울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릴리에 대한 회상은 무덤에서 천사와 예수님과 대면했던 여인을 생각나게 한다.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을 말했다(28:7),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고 명하셨다(28:10). 여인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아무에게나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던 마가복음의 모습과는 달리(마가복음 16:8), 마태복음은 여인이 충실하게 제자들에게 보고한 것을 전하고 있다.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다시 모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대의 영웅들의 모습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신 갈릴리의 산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전하셨고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함을 설명하셨다. 지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친 것이다.

28:17 다시금 적지만 힘 있는 말씀들은 독자로 하여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응답하는 제자들의 위치를 이해하게 만든다. 여인이 28장9절에서 말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배했다. 예수님의 명령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커뮤니티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 독자는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교회와의 대화로 하나님의 중간 수단이고,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응답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준다.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곳이다. 마태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의 반응의 자세에서 제자들의 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본문의 장면은 한 사람의 배신과 다른 사람의 부인과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어떤 제자들의 의심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심으로 쉽게 추측할 수가 있다. 그들 개인의 의심과 낮은 자존감과 정당화하는 평가가 아직도 죄스러우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실 지에 대해서 몇 사람을 의심하게 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좋은 소식은 의심을 물려가게 했고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세상: 예수님의 명령에 도구가 되는 장소(28:18-20)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마태는 예수님의 미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마태복음에서 힌트를 주듯이 예수님의 미션은 모든 사람을 포함 시켰다(15:21-28).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미션의 대상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에 머물러 있다. 당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까지도 어떤 미션을 금하고 있다(10:5).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모든 민족” 에게 미션을 넓히셨다.

일이 넓어지는 범위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망설임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사라져 버렸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18).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미션을 지휘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것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였듯이 18절의 ‘제자를 삼으라’ 는 실질적인 명령은 한 단어의 명령형으로 되어있고, 두 개의 분사들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로 되어 있다. 세 번째 분사인 ‘가라’ -원래는 너희들이 갈 때에 - 모든 문장을 주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번역들이 분사의 명령형을 강조하고 있지만(그러므로 가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도의 삶 속에서 평범한 역할인 제자를 삼는 일을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가 갈 때에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따르는 자의 서약과 방향과 새로운 삶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이다. 둘째는 제자들로 새롭게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를 가르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기억되었듯이 제자도의 극적인 가르침은 새로 헌신하는 엄숙한 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준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우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28:20). 교회는 “제자를 삼으라” 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 때에 예수님의 임재의 파워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의미

오늘 주제가 주장하듯이 제자로 삼는 것은 “명령이지 권유가 아니다”. 침례와 가르침 두 가지 면의

중요성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다. 첫째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고 침례의 증거를 통해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 둘째 교회는 극적인 제자도를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침례의 숫자를 세면서 축제를 한다 하지만 적은 숫자의 교회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의 명령에는 똑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제자도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침례와 가르침은 제자도의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교회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의 부분적인 명령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면들은 무시되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극적인 제자도를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다. 미션에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속했으므로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성공은 예수님의 성공이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에 진전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명령인 “제자 삼으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예수”의 임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와 지도와 힘을 주신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은 세상과 우리들의 예배 사이에 좋은 긴장을 유발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성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삶과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일과 예배의 두 가지는 크리스찬의 제자도에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것들을 권유로 받지 말아야 한다(명령).

교사 계획

삶과의 연결

1. Z.N.Morrell 에 대해서 study guide 안에 나오는 작은 문구를 소개하고 읽히도록 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 삼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성장시키는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곳에 합류해야 한다.

학습 인도

2. 아래와 같은 포스터를 진열해 놓으므로 전에 배웠던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제 9과 제자도의 얼굴과 극단적인 면들	마태복음 8:18-22
제10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마태복음 9:35-10:15, 24-31
제11과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	마태복음 16:13-17, 21-26
제12과 진지하고, 은혜를 보이고, 겸손하라	마태복음 23:1-12

반원들에게 전과에서 배운 통찰력과 원리들을 나누도록 한다.

3. 마태복음 28:16-17절을 읽을 자원자를 찾아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볼 때에 의심했는지 질문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토론하라. 제자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가?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학습공과 안에 인쇄된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마태복음 28:18-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라. 이 구절을 암기하는 자가 있으면 암기한 것을 말하도록 격려하라. 반원들에게 이 구절들을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질문하라(위대한 사명). 누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지 질문하라?

5. 18절을 다시 읽으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무슨 권세를 받았는가?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누구에게 가졌는가?

6. 학습공과의 정보들을 사용하고 Teaching Guide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기”에서 마태복음 29:19절의 “가라”의 의미를 설명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를 삼으려 할 때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질문하라. 모든 의견들을 칠판에 쓰라.

적용 격려

7. 당신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질문하라

8.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9. ‘제자로 삼으라’는 토론의 가이드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사용하라

- *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침례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 *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예수님의 명령들이 무엇이 있는가?
- *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 *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10. 마무리하는 질문들로 답들을 큰 포스터에 쓰라. 답들을 쓰는 것을 준비하라.

- * 우리가 서로 좋은 제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 * 우리가 교회로 제자로 삼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11. 자발적으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도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

10/40 창문은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와 아시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가장 북음화 되지 않은 지역이다.

<p>[성탄절 수업]</p>	<p>베들레헴으로 감</p>
<p>핵심본문 누가복음 2:1-20</p> <p>배경 누가복음 2:1-20</p>	<p>학습주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인도한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부르셨나?</p> <p>학습목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나의 삶으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결정한다.</p>

성경 주해

본문 이해하기

누가복음은 시저 어거스투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한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다(누가복음2:1). 그의 명령인 인구조사에 의하면 시저 어거스투스는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 했다.

보통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구 조사가 실시됐다는 것도 모를 때도 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인국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몇 백만 명이 법에 따라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나 비행기로 오고 가고 한다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시저 어거스투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나라의 일이었지만, 그때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고,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 나사렛에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죄를 없애고,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되어야 했다. 미가가 예언한대로(미가5:2) 메시야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다. 하지만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는 북쪽 갈리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황제의 무분별한 명령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도록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길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다(2:1-7)

2:1-3.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인구조사를 명령한 시저 어거스투스 황제의 이름과 시리아의 통치자인 퀴리니어스의 이름을 사용했다. 시저 어거스투스는 옥타비아노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14년까지 홀로 다스렸다. 아마도 인구조사의 목적은 등록 명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누가는 이 같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2:4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참고를 주었지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1:27을 보라). 그것은 구약의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음을 견고히 했다. 사무엘 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갔음에도 성경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쪽이 북쪽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2:5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누가는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 마리아, 요셉이 말하기를 “정혼하기로 약속한지라” [요셉]

2:6-7 여행객으로 가득 찬 베들레헴에 방이라고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했다. 마리아는 산모의 진통에 들어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마굿간에 피난처를 찾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난 곳 말이다. 그들은 아기를 천으로 싸서 동물들을 위한 먹이통에 아기를 누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심(2:8-14)

2:8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고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이다.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목자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목자들은 밤에 가까운 들에서 양들을 지켰다-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허세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좀 더 겸손한 목자들을 택하셨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더 잘 받아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상징하시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다. 목자들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천사들과 합류하기 전에 한 명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2:9-10 주의 사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 있었고 목자들은 자연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

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2:10). 천사는 계속 말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10).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와야 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나 감추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다.

2:11 “다윗의 동네”는 명확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헬을 가르친다. 천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언급한다. 그분은 ‘구원자’ 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 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주님’ 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2:12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이 중요하다. 그들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 명의 아기들을 가축 먹이통에서 찾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3-14 천사들의 찬양대가 노래하는 모습은 목자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이었다. 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한 목자들(2:15-20)

2:15 천사들의 방문이 끝난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알려주심에 그들은 베들레헬으로 반드시 가기로 결정했다.

2:16 목자들이 “빨리” 라는 의미는 그들이 급하게 즉시 떠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아직도 마굿간에 있었다.

2:17-18 목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그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다.

2:19 마리아에게 아기와 들은 모든 말씀들이 기이했지만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간직했다. 그녀는 이것들을 마음 속 깊이 새겼다.

2:20 목자들은 그들이 본 모든 것이 천사들이 준 특별한 표적들과 일치함에 만족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심에 영광을 돌렸다.

핵심 의미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두 번째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관념이다-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창조에 관여하셨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은 천지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만든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요한복음

1: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이 배척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 구원, 영생의 선물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다. 요한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니 라 (요한복음 1:12-13)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주님의 미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10). 구원의 관념은 요한복음 3장16절 안에 견고한 껍데기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받았고 순종의 행동으로 순응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서둘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당신의 부모나, 남매나, 자식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구원을 대신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코트 자락을 붙잡고서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스스로가 영접해야 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사 계획

삶과 연결하기

1.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들을 수가 없다. 반원들이 열려진 귀와 열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듣도록 초대하라.

2. 반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가장 어릴 적에 들었을 때나 읽었을 때를 기억하도록 초대하라.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가 읽어준 것을 들었는가? 교회 연극에서 묘사한 것을 보았는가? 반응을 기다리라.

학습 인도

3. 인도자 지침서 안에 있는 성경 주해를 사용하고 학습공과 안에 있는 “예수의 탄생”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정리 하라.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는지 집중하라. 누가복음 2:1-7절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참고하라.

4. 누가복음 2:8-14절을 읽을 사람을 초대하라. 반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목자들의 반응과 천사들의 메시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라. 반응을 기대하라.

5. 천사들이 예수님을 묘사한 세 가지 자격들이 무엇인가? 질문하라. 인도자 지침서 안에 2장11절의 강해를 소개하고 학습공과 안에 “천사들을 듣기”를 사용하라.

6. 누군가 2:15-20절을 읽게 하고 천사가 떠난 후에 목자들의 반응을 듣도록 하고,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기뻐하며 목자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을 가르치라. 반응들을 기다리라.

적용 격려

7. 질문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